



서울大同憲會報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2006년 4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 월간 | 제337호

발행인 | 林光澤 | 편집인 | 孫一傑 | 편집주간 | 許璫
발행처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서울 미포구 도화동 18-2
전화: 702-2233 | 팩스: 703-0755 | AFS: 066-604-0011
창여 | 협력 | 영광 | www.snu.ac.kr

관악대상 수상자 여러분 축하합니다!



좌로부터 음대동창회 徐桂淑회장, 본회 孫一傑상임부회장, 趙長熙동문, 金炯珠동문 부부, 본회 林光澤회장, 金殿宗동문 부부, 吳興許동문 부부

〈관권기사 2~3면〉

관악출추

이번 호로 동창회보가 창간 30주년을 맞이했다. 1976년 4월 24일 정기총회에 총 16면 4전부를 배포해 총동창회보 홍보하고, 동문 상호간의 긴밀한 결속과 유대 강화를 기했다. 당시에는 관악캠퍼스로의 교사통합이 행해졌던 시기였다. 그러나 서울대학교총동창회의 통합은 형식적으로는 이뤄졌으나 실질적으로 과거의 연립동창회 체제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법대동창회장을 역임한 李義福前생이 동창회 상임부회장이 되자 서울대학교총동창회로의 보다 기밀한 협력도 도모하기 위해 동창회보를 발간하기로 결정하고 당시 법대동창회가 발간하던 '낙산회보'를 벤치마킹해 '서울대동창회보'를 발간하게 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각 단과대학동창회는 재정상태도 좋고 홍보물도 발간하고 있었으나 총동창회는 재정상태도 좋지 않았고 홍보물도 거의 없는 상태였다.

회원 중에는 단과대학 동창회비를 냈는데 총동창회비를 이중으로 내야하는 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고, 경쟁상대로 생각해 박안시하는 단과대학동창회도 있었으나 동창회도의 발전을 시작으로 연립동창회가 통합동창회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동창회보는 모교

의 대하신문과도 긴밀히 협조해 서울대학교 통합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동안 재정분제로 격월간 12면을 발행했던 어려움도 있었으나 1980년 3월 1일부터 월간으로 전환하게 됐다. 동창회보의 발행부수도 늘었고 증면도 됐다. 이때 동창회보는 서울대학교총동창회관 건립의 홍보역할을 담당했고 현재의 동창회관의 건립에 성공했다. 또 동창회보를 통해 지방조직을 독려했고 잠재된 단과대학동창회의 각성에도 큰 기여를 했다.

동창회보는 해외지부 결성과 활동에도 노력해 1993년에는 '재미 서울대동창회보'가 창간되기도 했으며 해외동문과 국내동문의 유대 강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제 동창회보는 32면으로 확대됐고 국내판 10만부, 미주판 7천부, e-mail동창회보 5만부 총 15만여 부를 발간하게 됐다. 3백호 기념으로는 PDF식 CD-ROM을 발간하기도 했다.

2006년부터는 동창회보가 새 '창학발전' 건립을 위해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 모래알에 불과했던 서울대학교 동문들을 동창회보가 촉매가 되어 30만 동문의 대통합을 이뤄지게 새 창학발전 건립사업에 일조가 될 것으로 믿는다.

동창회보가 앞으로는 다양한 편집으로 노·장·청의 동문들이 기대하는 정보로 되어 할 것이며 모교의 동창회의 발전과 동문들의 행복추구에 기수 역할을 계속하게 되기를 바란다. (哲)

동창회보의 무궁한 발전을

창간 30주년 기념詩

쉬는 날

金南 祥(국어교육47·51) 숙명여대 명예교수

친구여 예 외서 쉬어라
세월의 회람을 엿갈려 돌면서
계절쯤 바람차락에
마음의 살결 수시로 닿았으니

수십 년 오랜 나날 동안
저마다의 끈에 서로 묶여 지났으니
이쉬운 노를 속절없이 사위는
이 해저물녘에라
가치 벌어 열까안은
못 말릴 나무라친들
무슨 허물 될 일인가

소담한 초가삼간
우리의 집집을 마련했으니
시원한 눈매로 선선하게 쉬자
세상이 손짓해 부르거든
쉬는 날이라 하련
그 사이 여러 친구 북망산 넘어가고
몇 사람 겨우 남아
혈림한 사랑 한 밀
나뉘 났는다 하련

창간 30주년 기념 특집 40면 발행

만든 사람 | 논설위원 | 金哲圭, 金昌益, 朴世熙, 林炯斗, 李炯均, 南仲九, 金鎮淵, 安炳熙, 任月機, 宋煥赫, 金好俊, 洪性萬,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正龍, 李慶熙, 金鍾勳, 金仁圭, 徐玉璫, 李光燾, 高永子, 姜天錫, 嚴基永, 朴時龍, 辛京淑, 朴聖姬, 朴勝愛, 金銀國 | 편집진 | 安興愛 | 편집부 기자 | 朴宰幸, 裴智媛, 金南柱 | 광고부장 | 金千鶴



제21대 회장에 林光洙회장 재선임

정기총회 대성황 ... 제8회 冠岳大賞 시상도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3월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리 스타룸빌딩에서 각계 동문 8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8회 정기총회 겸 제8회 冠岳大賞 시상식을 개최했다.

본회 幹事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林光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년간 회보는 물론, 각종 모임에서 서울대인이 배움에 겸손하고 삶을 바라봄에 있어 따뜻하며, 타인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있어 인색하지 않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실천해온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하고 "현 동창회관 자리에 장차 빌딩을 짓는 계획을 공표하고 동문서주하다 보니 동문들의 격려도 많이 받고 건립기금도 당초 예산을 웃돌아 앞으로 최선을 다해 관리할 작정"이라고 덧붙였다. <개회사 요지 참조>

모교 李熙仁부총장은 鄭仁泰총장을 대신 한 축사에서 "지난 3월 10회보에 '동창회·모교는 함께 한다'라는 1면 제목을 읽고 서울대가 세계 유수대학이 아닌 '월드클래스'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교직원과 재학생 모두가 열심히 뛰어아라"고 다짐했으며, 다짐에 발전해 나가는 멋진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8회 '서울대동문회 冠岳大賞' 시상에서 참여부문에 미국 캘리포니아 뉴프라이드그룹 김

에 삼인프레이언 김炯珠(보훈공회46·50) 회장, 영광부문에 가천의과대학 趙秉熙(전자공학55·60)노과학연구부장, 해외부문에 재미총동문회 吳秉昨(치의학56·61) 명예회장이 각각 수상했다. <공적 및 수상상 3면 참조>

孫一根상임부회장은 수상자 선정 결과보고에서 "敎道傳의 '三峯集' 중 '實은 곧 하늘의 숨'이라는 말을 떠올리며 이번 관악대상이 '받고 싶은' 상이 아니라 '주고 싶은' 상이 되도록 삼역을 기울여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안전 심의에서 동창회 회장 제8호(위원의 선임)와 제11호(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과 소집)에 따라 李錫赫(행정54·58)부회장의 상임이사회 합의 주대 결과보고 겸 동의와 朴衡主(정치48·57)前국회의원의 재정발언 등에 이어, 제21대 회장에 林光洙회장을 민정임치로 재선출했으며 朴美英·朱成民(간사)을 재선임했다. 또 부회장단 구성은 林희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林光洙회장은 수락 인사에서 "50년간의 건설팀을 통해 동문들께 바라고 또 기대하는 수준



林光洙회장이 축하 꽃다발을 받았다.



朴美英(左) 朴賢宰교수가 '축배의 노래'를 선사했다.

에 어긋나지 않는 동창회관을 건립해 모교 교수님들의 연구활동을 돕고, 동창회 때문에 재학생 후배들의 큰 골이 전개 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역설했다.

만찬 중 幹事부총장이 본회와 재단법인 관악회의 2005년도 결산과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업무를 요약 보고했다. 이어 朴美英간사가 2005년도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했으며, 민정임치로 동창회 2005년도 결산을 발표했다.

이날 冠岳大賞 수상자를 축하하

林光洙회장 개회사 <요지>

존경하는 서울대 동문 여러분!

동문들의 동창회 사업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회비도 예년의 배 이상을 납부해주시고 특기사항과 각종 찬조금도 풍성하게 보내주심에 따라 동창회로서는 그 고마움의 만 분의 1이라도 보답하고자 여러 가지 사은품들을 제자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동산대회, 사은 갈반대회에 이어 바둑대회, 동문 골프대회가 동창회 행사로 추가됨으로써 동문들의 균형 잡힌 동창회 참여를 가능케 했으며, 특히 처음 실시한 동문 골프대회는 골프 애호 동문들의 자부담 형식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성황을 이룬 데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중국지역 동문들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북경과 상해지역의 방문은 양의 동문들에게 서울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재인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으며, 이들 바탕으로 금년 4월에는 일본지방 동창회를 더욱 새롭게 재건하고 활성화시키는 모임을 가짐으로써 역사적으로나 자라적으로 큰 인연과 의미가 있는 한·중·일 동창회 조직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회보는 물론, 각종 모임 등에서 우리 서울대인이 배움에 겸손하고 삶을 바라봄에 있어 따뜻하며, 타인을 섬기고 사랑함에 있어 인색하지 않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실천해온 자는 공감대를 지속해 많은 사랑 깊은 동문들로부터 동감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동창회관에서 마지막 통사이고 사임이라는 마음으로 현 동창회관 자리에 지상 19층, 지하 6층의 장려빌딩을 짓는 계획을 공표하고 동문서주하다 보니 동문들의 격려도 많이 받고, 건립기금도 당초 예산을 웃돌아 11월이 10억원 이상을 출원 또는 약정해 주셨고 그 외에도 몇 달 전 생각되고 계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립기금이러기보다는 그분의 장학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그분의 명예를 장학회에 영입해 보존해 드리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갈 작정입니다. 소액 출연 분문임지라도 그 이름을 등단에 새겨서 동창회관 내의 명예의 전당에 영구히 보존할 것입니다.

다시 필요로 하는 가장 우수한 두뇌 집단으로서 목숨까지 자신의 건을 걸으며, 국가명예를 위해 무한한 힘을 지는 서울대인임을 신장하는 것만이 우리 뒤에 유족 서 있는 최고의 지성의 전통인 모교에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대학의 경쟁력이 곧 나 자신의 수준을 말해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30만 동문들에게 남겨진 과제는 거슬러 80 주년을 맞이한 모교가 앞으로 그 발전역량을 차분하게 제고시켜 글로벌 인재로 배출하는 세계 TOP 10 대학의 부위에 당당히 '1'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문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협조, 그리고 성원을 기대합니다.

기 위해 모교의 朴美英(성악79·83)교수가 '무제타의 왈츠', 차원(성악86·90)교수가 '노블레스'를 열창했으며, 듀엣으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를 불렀다.

한편 친화 캠퍼스 중계와 영상물

상영을 위해 두리비전(사진 李錫赫·AMP 43기·AIP 13기) 기술진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참석자들은 본회에서 준비한 기념품(교금 가족지갑)과 朴美英(국악교과46·50)동인의 합창한 '넉스온 화창품제스'를 받았다. <表>

30만 동문과 함께 동창회보가 새 역사를 씁니다!

— '詩'와 '공트' 등 새로 연재 —

알림 지면 대혁신

1976년 4월 24일 출범한 동창회보가 이번 호로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보는 회보, 기다려지는 회보, 읽히는 회보'가 되기를 꿈꾸며 30년 동안 동문 여러분께서 부단히 기원해주고 사랑과 성원을 온 마음으로 다시 세겨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본보는 창간 30주년을 맞아 각 분야의 동문들의 참여

를 더욱 유도하기 위해 이번 호부터 시와 공트 그리고 재학생을 포함한 젊은 동문들의 목소리를 담은 등 지면 개편을 단행합니다.

또 이번 특집호부터 관악 및 연건캠퍼스 내에 설치된 우리 대학교 다양한 상징물들을 '모교소식' (산배, 아세 요가)을 통해 소개합니다.

새롭게 다가가는 동창회보에 30만 동문 여러분의 더욱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창간 30주년 기념 화 (金南曄동문)	1면
■ 노블레스오블리 (金一熙동문회장)	5면
■ 동문칼럼 (朴憲仁동문)	5면
■ 모교와 동창회에 바란다 (30세 동문)	6~7면
■ 창간 30주년 기념 글 (朴憲仁동문)	9면
■ 동창회보 30년 발자취	11면
■ 동문작품 감상 전시회 (韓慶泰동문)	14면
■ 문학 인터뷰 (金花中동문)	16~17면
■ 과학의 꿈 (金鎭東동문)	19면
■ Noblesse Oblige (羅廷康동문)	19면
■ 서문지 7기 (李敏熙동문)	30면
■ 건립 30주년 (金東熙동문)	33면
■ 간접 장학금 (朴憲益동문)	33면
■ 추억의 창 (李承範동문)	34면

모교와 사회·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당신들이 자랑스롭습니다!

冠岳大賞 수상자 공적 및 수상소감

지난 3월 17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8회 '서울대총동창회 冠岳大賞'을 수상한 4명의 동문에 대한 공적사항과 수상소감을 소개한다.

참여부문

뉴프라이드그룹 金殷宗회장

▲1959년 상파대학 경제학부에 입학해 1963년 졸업했다. 1972년 도미, 이만 1세대로서 새로운 사업을 개척해 한인사회의 귀감이 되었으며 활발한 기업 운영을 하는 동안에 샌프란시스코지부 동창회장·상대동창회장 과 LA지부 상대동창회장 등을 역임하며 동창회 발전에 헌신했다.

1978년 오클랜드에 트러플 타이어전문 업체인 Pacific Coast Retreaders를 설립해 성장과 신용으로 미 전역에 트러플

타이어사업을 확장시켰으며, Inter Modal Maintenance Services社, PCR EAST社, Freedom Industries社를 연이어 설립, 현재 New Pride Group 회장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재미 동문으로는 처음으로 장학비금으로 1백만 달러를 쾌척해 모교 지원 사업에 크게 기여했다.

▲金殷宗회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지난 번 서울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미려하지만 땀만 뿜어 내는 열악한 여객기에 있는 행운을



얻었는데, 8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며 무엇보다 한 인간으로서 자기 소회와 완성에 대해 진지하고도 인상깊은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난다"고 운을 뗐 뒤 "미국에서의 처음 몇 년 동안은 실패의 연속이었으나 서울대를 준

업했다는 자부심이 없었더라면 그대로서 포지티브한 것"이라며 "대학 2학년 때 부친께서 돌아가셨을 때에도 당시 함께 공부했던 동기들과 신배들의 도움으로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어 그 고마움을 평생 간직하고 살아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의 자그마한 기부가 가진 자의 여유fulness로 기부하는 사회인식을 변화시켜 '기부는 곧 미덕'이라는 통념이 확산돼 더 많은 동문들이 동창회와 모교의 발전에 동참하기를 바라며, 머리는 냉철하지만 뜨거운 가슴을 가졌으며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돕고 양보할 줄 아는 인성을 갖춘 후배들을 양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자"고 당부했다.

협력부문

삼안코퍼레이션 金炯珠회장

▲1946년 공과대학 토목공학과에 입학해 1950년 졸업했으며, 제1회 기술고시에 합격, 건설부에서 11년간 대과 하천교량 사업을 담당했다.

이후 1967년 삼안건설기술공사(현 삼안)를 설립해 국책사업인 다목적 담과 수력발전소 건설, 지방 및 도시개발 계획의 설계·공사·감리 등을 통해 국가개발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1991년부터 삼안건설이신 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수학회장, 한국에너지학 협회

회장, 엔지니어링경제조합 초대 이사장, 국제기술훈영연맹총회 한국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총주다목적댐 건설공로 대통령 표창, 과학의 날 과학기술발전공로 산업훈장과 과학기술훈장장기장, 자랑스러운 공대 동문상 등을 수상했다.

특히 사후에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金炯珠회장은 대한토목학회에 72억원 가량의 학회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그의 후를 닮 "松上費"를 제정, 언론·문화·기술·학술 분야에



공로가 있는 4명의 인사를 선정해 매년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같은 해에 松上 장학회를 설립, 매년 2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해왔다.

한편 金炯珠의 본국한 관제를 조모하고 자 북경 청화대에 1백만 달러를 기부, 하

술연구소를 건립한데 이어 지난해 12월 모교에 송산강원환경종합연구소를 건립하기로 약정했으며, 동창회 장학재단 건립 기금으로 10억원을 출연함으로써 재산을 공익사업에 회사하며 "도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실천하는 이렇게 원로동문으로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金炯珠회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앞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학회를 통해 젊은 인재들을 많이 양성하여 이들이 우리 나라 국가발전에서 큰 공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진 것이 없어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부문

가천의과학대 趙長熙석학교수

▲1955년 의과대학 의학과에 입학해 1960년 졸업했으며, 1962년 석사 학위를 받은 뒤 1966년 스웨덴 옘살라에서 전사분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75년 미국 UCLA 교수이자, 뇌영상장치인 양전자 단층 촬영기(PET)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며, KAIST 교수시절에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2.0T MRI를 이용해 해외의 논문 1백여 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하는 등 30여 년간 MRI와 CT를 비롯한

각종 의료 영상장비를 발전시키는데 선구자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임세대에 방사선물질을 넣은 영상분을 부여하면 영상본이 소피할 때 앞전자기 나 오는데, PET는 이것을 삼차로 영상으로 변화시키는 기기로, X선과 CT, MRI와는 달리 약이 눈으로 식별 / 불함 정도로 자라기 이전 단계까지 관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의료장비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적 뇌과학자로서 스웨덴 스톡홀름대 교수, 미국 UCLA 전기공학과 교수, 컬럼



비아대 방사선학과 교수, KAIST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미국 USC 치과대학치과학과 교수 등을 지내며 후학양성에 크게 헌신했으며, 현재 가천의과학대 석학교수 겸 뇌과학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 나라 생명과학분야의 발전을 위해

국내 대학교수로 자리를 옮긴 趙長熙는 현재 PET의 낮은 해상도를 보완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MRI와 결합된 새로운 뇌영상 장치를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趙長熙교수는 수상소감을 통해 "한국 대학의 미래와 대학교수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림픽에 수학이 잘 나가는 조교들과 원리가 적은 이유가 '서울대에는 세계적인 논문이나 학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좋은 인재를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교가 석학교수를 많이 배출해 이들이 국내에서 뛰어난 업적을 내고 후배들에게 그 뒤를 이어 더 훌륭한 연구업적을 내는 데에 세계적인 대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부문

재미동창회 吳興祚 명예회장

▲1956년 치과대학 치의학과에 입학해 1961년 졸업했다. 1976년부터 미국 LA에서 치과병원장을 운영하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제7대 재미동창회장을 역임, 해외 동문들의 단합과 모교 발전을 위해 크게 이바지했다.

재미 한인스쿠버협회 초대 회장, LA 사회회 회장, 한인치과의사회 회장, LA지부 동창회장 등을 지냈으며, 재미동창회장 시절 모교 鄭東憲총장을 비롯해 국내외 저명한 과학자를 초청, 강연회 등을 개최하

며 동문들은 물론 한인사회 전체에 개방함으로써 '지역과 더불어 발전'하는 동창회 "이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공헌했다.

또한 기존의 타남미드에서 멀리 전하고 보편화가 쉬운 집지형태의 획기적인 동창회보통 반강제 동문들의 동창회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수 동문들의 참여를 크게 높였다.

무엇보다 LA지부 동창회장으로서 있으면서 많은 동창회가 있고 있는 젊은 동문들



의 참여 확대 방안으로 관악캠퍼스에서 졸업한 80년대 학번 이후의 동문모임인 '뉴 약연대'를 발족시켜 현재 20개 바주지부와 3개 캐나다지부 동창회까지 확대하여 1만5천여 명이 동문들의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하고 모교에 대한 애호심을 불

려일으키는데 기여했다.

▲吳興祚명예회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미국 LA, 뉴욕, 시카고 그리고 워싱턴 DC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적은 수의 동문들이 '지부들' 건설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자동차로 6시간을 달려 도착해보니 대부분의 동문들이 그 먼 거리를 달려와 총회에 참석할 것을 보고 크게 감동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하고 "저마다의 분야에서 모교와 위상을 드높이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동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느리나무광장

우리 동창회에도 이제 개성이라고 할까, 색깔이라고 해도 좋고 하여간 제 위상을 정립할 때가 됐다. 창간한지 30년을 맞이한다. 사람으로 치면 풍자의 말마따나 나이의 뜻을 세우는 '而立'의 階段에 이른 것이다.

내가 92년 법대동창회 부회장으로서 처음 이 회보의 논설위원(당시는 편집위원)으로 참여했을 때만해도 16면에 10면부부 훨씬 말쑥했다. 지금은 그 곱잡인 32면에 근 20면부(은-오프라인 합제)를 발행하고 있으니 훌쩍 건너편 세월만큼이나 회보도 비어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회보 편집진은 이러한 외적 성장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치른 진지상(회보)을 동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입맛에 맞을까", "처음엔 수저를 들었다가 중간에 내려놓지는 않을까"하며 늘 마음을 태운다.

다구나 다못한 매체들이 우리 생활 속으로 파고들면서 활자매체는 사치하다! 몰래나기 신상인 아예오늘이다. 신문 구독자 수가 하강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차지하고서라도 우리의 생활 패턴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얼마 전 모교 언론정보연구소와 KIS가 공동조사한 결과를 보면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한국인의 신문 읽는 시간이 하루 평균 5분에서 3분으로 줄었다. 이처럼 점점 어려워지는 여건 속에서도 어떤 모양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지 동문들의 사랑을 받을 것인가! 두고 고민하여 나쁠대로 공리를 거듭하고 있다.

대도시 교통망을 이렇게 빚어내는 사람이 있다. 직

선적인 幹線에는 국적인, 국선적인 支線에 지하철이 달리고, 이 두 선이 커버하지 못하는 사이로 버스가 달리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우리 회보는 일반 매체와는 달리 동문들이 역까지 갈는 불편을 겪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버스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어쩌면 무분무란 글짜까지 편리하게 누르고 다나는 마음바스인지도 모른다.

아니! 그 보다는 회보가 月刊이므로 한 달에 한번씩 줄

즐거운 나들이처럼...

— 디렉스 관광버스로 달려보자 —

孫 一 根
본회 상임부회장
본보 편집인



거운 아우회·나들이 가는데 동문들 자택까지 가서 모셔 오고 도사드 드리는 편안한 관광버스라고 비유해야 좋을 것 같다.

회보를 이런 버스로 한다면 마음 같아서는 구조도 특별히 '오더 메이저'해서 일박 두어 개도 비싸게 두고 싶다. 여기에 즉 둘러앉아 서로 부를을 맞대고 맥주라도

한잔쯤 곁들여 가며 동문간의 우의를 다지는 게 하면, 때로는 진지하게 모교와 나라의 장래를 짚어보기도 하며 차창의 풍경도 즐긴 수 있는 디렉스한 관광버스로였던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편집소대표의 꿈이다.

부질없는白日夢이 아니다. 이렇게 다져진 동문들의 끈끈한 우의와 뜨거운 정성은 몇 해 전 서울대 폐지생 반박과 이념의 동창회 참여비밀 건립기금 모금에서도 보여주듯 미처 예상 못한 만큼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한 것은 아닐까. 이번 호부터 지면도 채신하고 젊은 지면이지만 시(詩)와 소설(콩트 릴레이)나도 신설하고 젊은 지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볼 작정이다. 예산이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면을 컬러로 인쇄한 것도 상당한 기쁨을 즐기시도록 하기 위한 배려다.

흡족하지는 못할정정 회보 구성에서 녹아 있는 지학들의 赤誠을 해리려 주신다면 황래 아우회·나들이가 더욱 뜻 있고 즐겁지 않을까 하고 재밌도록 꾸미는 것이다. 蛇足を 단다면, 활자매체의 앞날이 어둡지만은 않다고: 사실이다. 영국의 '가디언'지 편집장 앨런 러스버리지의 말이기도 하다. 일본은 황자문화진흥회를 만들고 NHK (News paper in Education) 캠페인을 벌여 신문들 또한 상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신문인 런던의 '더 타임스'는 大版에서 콤팩트판(小版= 타블로이드판)으로 바뀌었다.

이 모두가 영속적 기록성을 가지고 반복 熟考의 학습성이 뛰어난 인쇄매체를 살리기 위한 변신의 몸부림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회보의 크기가 바로 이번엔 바뀔 런던 '더 타임스'와 같은 관행이다.

동문칼럼

어느 동창회든지 동창회보를 보면 그 동창회가 어느 정도 살아 움직이고 전폭단체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만큼, 동창회보는 바로 동창회 활동의 전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특히 서울대동창회보는 30만 서울대인에게 동문이라는 유대감과 소속감을 주기만 하는 유일한 매체체로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12년 전, 1994년 5월에 金在淳 前교 회장장은 회장에 선출되자마자 동창회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교 교수와 신문·방송에서 활약하고 있는 중견 언론인 등 13명을 논설위원으로 위촉하고 '보'는 회보, 기더려지는 회보, 현하는 회보'를 목표로 대대적인 지면 채신 작업에 착수했다. 필자도 그때 상임, 논설위원으로 위촉돼 2년 반 동안 회보제작에 참여한 인원으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

사건이 흐르며 모든 것은 발전하게 된다. 창간 30년이 된 동창회보도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12년 전 당시에 비교하면 획기적인 변화는 없는 것 같다.

물론, 변화만이 낫지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회 회보보를 받아 보면서 동문들의 반응을 보면 요구사항은 많은데 이를 지면에 반영할 획기적인 방법은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동창회보는 무엇보다도 동문들의 활동이나 움직임을 주로 알려주는 동시에 전문적인 읽을거리도 제공해야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소식이란 것이 잘 나가는 사람들의 뉴스, 이 미 신문이나 방송에서 다 알려진 얘기를 되풀이하는 것이면 별로 의미가 없다. 수많은 동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름다운 사연들, 사소한지나 서울대인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시간들을 많이 발굴해서 소개해 달라는 주문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한정된 제작진의 인원과 장비로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일반 언론매체가 활용하고 있는 통신원 제도를 도입해 보면 어떨까 생각한다. 지역별, 직능단체별(직업별)로 관심 있는 동문을 통신원으로 위촉해서 동창회와 관련된 소식을 직접 작성하거나 편집실에 제보토록 해서 통신원 기명 기사로 게재하는 방법이다. 동문들의 참여의식 고취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다음으로 읽을거리라는 건강코너, 동문관련 등 다양하게 기획되고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그 사람이 아니면 쓸 수 없는 내용의 글을 많이 받았으면 한다.

나름의 글이나 칼럼이 인생이 무엇이다는 등의 추상적인 것보다는 자기의 독특한 한 직업이나 경력에서만이 나올 수 있는 소중한 내용을 담는다면 누구나 흥미 있게 읽게 될 것이다. 편집은 모든 인쇄매체가 '읽는 시대'에서 '읽는 시대'로 변했음을 항상 기억하고 되도록 크게 제목과 부제를 충실히 달고 내용은 간결하게 다뤄야 한다.

아무튼 동창회보는 동문 모두에게 소속감을 고취시키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나 자신도 못 치는 사람은 많은데 부정한 부상을 걸었던 콘퍼대회 소식을 크게 다루면,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동문도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

글로 1995년 신년호 '관객준주'에 '모래한 동창회의 汚名'을 썼자'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기억이 나는데, 그동안 동창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지 못한 필자로서는 회보를 통해 우리 동창회가 많이 발전했다는 감을 잡고 있는 것지만 아직도 '모래양'이 '참새'로 변한 것 같지는 않다. 개개인으로 보면 다 훌륭하네, '동창회'의 차원에서 훌륭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반대한 서울대인이라는 특성에 원인이 있다면 유일한 매체 수단인 동창회보만이 동문들을 결속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본받아 주시기 바란다.



朴 應 七
(정지57 65)
前KBS 제설위원

통신원 제도·독특한 기사 기대



본회·관악회 상임이사회

'법대 최고지도자과정' 준회원 영입

21대 이사 7천8백50명 선임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3월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층에서 동창회 제148차·관악회 제9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동창회 예산과 관악회 결산을 심의 의결했다. (동창회·관악회 결산 14~15면 6단 참조)

동창회 회칙 제8조 및 제12조에 의거 제21대 회장과 감사 추대에 대해 협의한 결과, 참석자 대표로 李奎植(前부회장)이 "이미 장학비밀 건립사업과 기금모금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차에 그동안 형성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온 林光洙(회장)에게서 남은 일들을 잘 마무리하여 세계 최고의 장학비밀당을 완성할 수 있도록 21대 회장에 추대하자"고 의견을 모았으며, 만장일치로 이를 정기총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林光洙회장은 장학비밀 보그에서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 건설교통부 유권해서를 받아 건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작년 10월 12일 도시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고 현재 설계와 기타 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예상으로는 이 지역에서 병행되는 상권발전도 건설 골작 등에 따른 인접변경이 변수로 남아 있지만 이것만 잘 해결되면 급근 회복기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동창회 회칙 제5조 제2항(준회원은 전신을 포함한 각 대학(원) 중퇴자 및 단기 연구교육과정 수료자로 한)에 따라 법대와대학 부설 '법대 최고지도자과정' 수료자를 준회원으로 승인했으며, 회칙 제8조 제2항(당원칙이 아닌 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해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한다)에 따라 추천된 7천8백50명의 동문을 제21대 이사로 선임했다. (表)

창간 30주년 특집

30세 동문, 그리고 재학생 등 10명 “모교와 동창회에 바란다”

X세대가 ‘키티맘’이 되어서



成 知 愼(성혜49-99)
산일회계법인 회계사

얼마 전 생일에 초 3개가 꽃인 케이크를 선물 받으며 나이 서른을 넘긴 것을 깨달았다. 역시나 서른 즈음에 돌아보는 것은 초 2개가 마음을 설레게 했던 스무 살의 꿈이 아날카 같다. 10년 전 하 이팅을 밤새 다들던 내가 싸이 월드 방명록에 발자국을 찍고 있고, 대학 3학년 전공시험을 위해

도서관에서 밤을 새던 내가 사무 신 노트북 앞에서 밥을 먹고 있다. 그런걸 보면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매개와 통로만 바뀐 뿐 본질은 그대로인 듯하다. 아냐, 조금 다른 본질의 변화라면 장미꽃 20송이의 핑크빛 로맨스는 남편과 딸과 함께 가정을 만드었고, X세대대의 집값을 올린다고 알고 바빠 뛰는 키티맘으로서의 바지런함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동창회보 창간 30주년을 축하

하면서 필자를 나타내주는 본질 중 하나인 내가 나우 내 학교, 서울대학교가 삶에서 차지한 부위에 대해 생각해본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때 나 역시 학교의 이름이 주는 사회의 훈장 덕에 으쓱하면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다. 서른 살 언덕이 주는 하얀의 쉬어감으로 돌아보면 믿을 수 없는 패기와 열정으로 조금은 오만했던 시기에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

받은 만큼 배운 것이 너무나 적은 것일 것이다.

서른 살은 청춘이 멀어져 감을 아쉬워하는 나이는 아니다. 오히려 스무 살을 돌아보며 마흔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배짱도 두둑한 나이다. 그러기에 이제는 받은 것보다 베풀 수 있는, 오만함보다 겸손함에 삶의 무게를 실어 본다. 그래서 마음이 하얗고 너그럽고 편안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서른 살인 것 같다.

든든한 후원자로 남아주길



姜 孝 善(국악94-98)
국립국악원 단원

76년생, 나이 30세. 나이 서른은 필자에게 참으로 커다란 의미로 다가왔다. 서른은 스무 살이 되던 실험과 실험과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마치 높은 고지를 향하는 숨겨진 발걸음과 같은 느낌으로 내게 다가왔다.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한다기보다는 무언가를

이뤄 나가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인 것이다.

한 가정의 안주인으로, 한 아이의 엄마로 내 가정을 온전히 이뤄야 할 때이며 관현악단의 단원으로, 또 솔로연주자로서의 내 꿈을 펼쳐보고 싶은 때인 것이다. 내 인생의 반도 다 지나지 않았으련만, 서른이라는 숫자는 내 발걸음을 재촉하듯 많은 생각과 숙제를 안겨준다. 나는 지금 서른 살이

되어 내 인생의 가장할 길을 새롭게 그려보고 계획해본다.

4월 20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국악인상을 읊을 연주회’, 5월 31일 영산아트홀에서의 ‘강요선 피리음악 음반발매 기념 연주회’, 이 두 개의 큰 연주회가 지금 내가 매진하고 있는 활동이다. 내 서른 살의 꿈을 모교와 동창회에서 함께 해주신다면 더없이 의미가 깊을 것 같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서른 살의 다른 동창들의 꿈도 함께 응원해준다면 우리 서른 살 동지들은 서로 든든한 마음 될 것이다.

동창회보의 나이가 서른이라면, 성숙하고 노련한 어른이 되어 가는 것이라면, 더 많은 동창들의 소식을 함께 해 주고, 더 많은 동창들에게 응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는 동창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만큼의 역할을 해야 할 때



趙 城 賢(국문95-02)
연희뉴스 사회부 기자

동창회보가 창간 30년을 맞았다. 소식을 듣고 서른 해를 짊어온 것이 비단 필자 혼자만의 이야기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반가워진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느낄 새도 없이 바빠 흘러가는 서른 살 봄. 뜻을 세운다는 ‘而立’의 나이에 서른을 맞이하면서 자신을 성찰하

고 인생의 분기점을 맞는 심정으로 차분히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 그러나 심장은 그다지 여유롭지 못했다. 기자 생활 5년째로 접어들면서 조직이 내게 요구하는 ‘5년차’ 만큼의 책임과 역할을 소화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여유’와는 반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생활을 의미한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서른이라는 나이는 생선의 중심을 떠난다는 것이다.

생선 현장에서도 그러고 학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 5개의 준우승을 ‘생선’ 해내며 한국 팀을 4위에 올려놓은 이승철 선수도 유예 만 서른이다. 서른이라는 나이가 주는 ‘무게’는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동창회보가 창간 30년을 맞았다. 이는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동시에 그 만큼의 역할을 해야 할 때가 됐음을 의미한다. 10년차의 동창회보와 20년차의 동창회보가 일구게

지 못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현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서울대는 올해로 60주년을 맞는다. 아홉 번째 예수 신이 되는 서울대와 서른 살이 되는 동창회보의 관계는 작지만 태아의 부자 관계라고도 볼 수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존중하고 공경하며 한 가족과 사회의 든든한 기초를 만들어 가는 서울대와 동창회보가 서로 밀고 끌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일 보고 싶다.

사회의 요청에 귀 기울이자



金 命 宰(전학95-99)
한국평등과학연구소 연구원

먼저 동창회보의 30번째 생일에 축하의 마음을 보낸다. 사실 그동안 동창회보를 보면서도 내용을 통해 그동안의 긴 역사를 가늠할 뿐 내가 태어난 해에 정년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는데, 동년배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괜히 모를 친근감을 느끼게 된다. 필자에게 나이 30은 새로운 삶

의 기점으로 다가왔다. 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께서 만 30이셨는데, 나 또한 같은 나이에 아내의 배속에 있는 2배의 반나절 기다리고 있다. 30세는 학문의 기초를 확립하는 때라 해서而立이라 불리며, 예수님도 그 시기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지금까지의 삶이 배우고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는 삶을 시작할 때이다.

이런 시기부터 사회에 진출해 생계를 책임지셨던 부모님 세대에 비해 전공을 바꿔가며 ‘연산’이 캠퍼스에 있었던 나는 출발도 늦고 여전히 미숙함이 많은 초보 사회인이다. 하지만 잡는 무게를 두려워하지 않고,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발걸음을 내딛고 싶다. 배움과 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내가 가진 작은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해보게 된다.

30대에 들어서면 동창회보에 대해서도 이런 기대가 생긴다. 그간 내실을 다지고 건강한 기틀을 만드는 데 주력해온 30년이었다면, 이제는 서울대인을 향한 국가와 사회의 요청에 부응하는 데 좀더 귀를 기울이는 새 출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많은 훌륭한 동문들과 함께, 자랑스러운 모교를 세워 가는데 조금이나마 안목을 담당하는 일로써의 날들을 꿈꾸어본다.

‘봉사’와 ‘섬김’을 전통 삼아



洪 玉 周(산입디자인95-99)
한양사이버대 강사

올해로 제가 세상에 태어난 지도 30년이 되었고, 학교를 졸업한지도 어느새 7년이 지났습니다. 졸업 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느끼는 것은 졸업했다는 것은 학교만 떠났을 뿐이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끊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삶의 현장 가운데서 먼저 인생의 과정들을 겪으신 선배님들과 현재 비

슷한 과정을 겪고 있는 동기들, 그리고 제가 이미 지나왔던 시기들을 지금 지나고 있는 후배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작년 여름에는 중국에 있는 연변과학기술대학의 여름학기 캠프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는데, 우연히 78학번 선배님이시며 또 제가 속했던 동아리를 지도하셨던 교수님과 76학번 선배님, 그리고 그 분들이 학생일 때, 역시 그 분들을 지도하셨던 이제는 80세를 바라보시는 교수님도

강의를 하러 오셨습니다. 90년대 학번인 저와 70년대 학번이신 두 분의 선배님, 그리고 50년대 학번이신 교수님을 우연히 그곳에서 함께 뵈고는 앞으로 20년, 그리고 40년 뒤 제 삶의 모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가지고 더 놀이기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 젊은 시절 좋은 꿈과 신념을 버리지 않고 평생 복록히 살았으며 겸손히 나누고자 노력하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그 분들의 존재만으로도

도 큰 힘이 됨을 느낄 수 있었고 저 또한 그런 선배가 되는 소망을 가져 보았습니다.

동창회보 30주년을 맞이하면서, 후에 40주년, 50주년이 될 때는 사회 곳곳에서 진리와 사랑을 실천할 시대에 본이 되고 희망이 되는 동문들의 소식들을 가득한 동창회보가 되고, 최고의 실력뿐 아니라 최고의 봉사와 섬김이 전통이 되어 사회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서울대인 되기를 기원합니다.

X세대인 94·95학번 동문들이 올해로 30세를 맞는다. '서른 즈음에'란 대중 가요에서 노래하듯 사회시스템에 안착해 '자유로운 청춘의 떠남을 아쉬워하는 나이'이다.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열심히 뛰어다닐 시기이기도하다. 예수는 서른 살에 복음 사역을 시작했으며 '경명학의 아버지' 파더 드러커

는 이 시기에 '경제인의 종말'이란 책을 내며 그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사회 곳곳에 자리잡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남녀 동문에게 서른 살의 의미와 동창회와 모교에 바라는 점 등을 들어보았다. 또 재학생의 눈에 비친 동창회보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실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 필요



鄭 鍾 伯(화95 01)
공중보건의

옛날에 30세는 '而立'으로 불렸다. 학문에 뜻을 두는 나이인 '志學'을 지나 모든 기초를 세우는 나이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한편으로는 서른 살에 가정과 사회에 모든 기반을 닦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올해로 동창회보가 3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필자의 경우도 올

해로 30세를 맞이하게 되니 동창회보와 나는 중첩대기인 셈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동창회보의 역사가 결코 짧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30년 동안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혀서 여기까지 성장해 왔듯이 동창회보도 그런 많은 성장을 거듭해 왔다.

모교 교수 및 방송인, 언론인으로 구성된 노년위원단 29명이 맡고, 매달 10만부 이상을 발행

해 28개 지방지부와 51개 해외지부를 포함한 30만 동문에게 배포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동창회보가 그간 이룩해낸 양적 성장을 실감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동창회보는 그동안 다소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나 모교 소식 또는 동문들의 소식 전달에만 중점을 뒀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서울대 동문이라면 누구나 어디서든 쉽게 인터넷

을 통해 동창회보에 접속할 수 있게 된 만큼 모교와 관련한 여러 정보에 대해 쌍방향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온라인 내의 공간 마련이 절실히라고 생각된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전자메일 등을 통해 동창회보의 적극적인 홍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동창회보가而立의 나이를 맞이한 만큼 이제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서울대 동문에게 다가와야 할 것이다.

새 전환점 맞이한 '계란 판관'



鄭 珉 始(정제95 00)
한국산용병기정보대리

살핀 개를 꼭 채웠다고 요즘엔 서른 살을 '계란 판관'이라고 부른다. 보통 30년을 한 세대라고 하니 이 정도면 한 세대가 바뀌었을 때쯤이다. 한편으로는 서른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다. 30세를 위한 특강 보편 관측전과 배에 쌓이는 인적이 늘었다는 점을 빼고는,

학부 시절에 한 선배의 생일날 '삼십 세'라는 책을 선물한 적이 있다. 아재와 고백하건대, 선물은 했지만 그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다.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도 제목은 많이 들은 것 같다. 그 만큼 서른이란 나이가 멀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 어느덧 서른이 되었다. 아바 마흔 살이 되어도, 원심이 되어도 그걸 잊을까? 청춘의 변곡점이 있다면 이 서른 즈음에 끝나는지... 한 시인 선배는 서

른에 '산지는 끝났다'고 선언했는데, 필자에게 올해가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 같다.

돌이켜보니 대학에 입학한 해로부터 벌써 10년이 넘게 지났다. 우리 경제학부 95학번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현재 한 자리에 모일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주위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동창회보를 받아보지 못하는 친구들도 꽤 있는 것 같다. 한창 활동할 나

이에는 직장을 옮기거나, 주소를 옮기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이런 것도 이유가 아닐까 짐작해 본다. 한 가지 방법으로 동창회 차원에서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소식도 전하고 연락할 일이 있을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올 봄에는 오랜만에 에버랜드에 나들이를 가볼까. 여기서 개강 30주년이라는네.

학생일 때가 마음 편했는데



金 成 泰(대학원03 05)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

길을 지나가다 마주치는 사람들이 '이제껏'과 부끄러움을 물어볼 때면 그저 어색하기 짝이 없다.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오랜 학생생활 덕분에(?) 아직까지는 '학생'으로 불릴 때가 마음 편한 것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런 말을 들을 때면 필자가 살아온 날들이 적

지 않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고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나이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대학원 졸업 후 사회생활을 처음 하는 나에게는 서른 살의 의미는 남다르다.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사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이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곳에 많은 동문 선배님들께서

성과 있는 정책연구 보고서를 생산해 국방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면 같은 동문으로서 자부심을 느꼈고 나 또한 많은 일에 대해서 성과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 더 분발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동문이라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가슴 뿌듯할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저 즐거

울 뿐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힘의 크기는 그 수의 단순 합계가 아닌 그 이상이라는 것은 사치시 효과에 의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동창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동문의 눈부신 성과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서로 분발하는 계기와 동시에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총동창회에서 더욱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후배에게 더 많이 주는 선배



鄭 圭 容(국사00입)
모교 4학년 재학생

우선 서울대학교 동창회보 창간 30주년을 마음 속 깊이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어온 서울대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동창회의 발전은 우리 사회의 저지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많은 일조를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동창회보 30주년을 한국 사회의 발

전에 있어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총동창회와 모교와 모교 후배들을 위해 장학사업 및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저지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온 선배님들의 노력이 우리 한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문화·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게 하는데 큰 힘이 됐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선배님들의 노력이 앞으로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들을 더욱 넓어질 것이고 한국을 세계 일류 국가로 만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감히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선배님들이 모아 주신 장학금을 받고 학업을 이룬 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선배님들께서 주신 귀중한 장학금을 받은

만큼 저 역시도 20~30년 이후 지금 선배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저의 후배들에게 선배님들께서 주신 것 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이 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서울대동창회 창간 30주년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의 초석이 되는 서울대동창회가 무궁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영자紙에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宋 珠 鉉(영문08입)
모교 'The Quill' 편집장

서울대동창회보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동창회보의 제작에 참여해 오신 분들의 수고와 열정에 후배로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 기회를 빌려 선배님들께서는 다소 생소할 서울대 영자신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영자신문은 'The SNU

Quill'(이하 The Quill)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005년 6월, 재학생들의 자재적 힘으로 창간되었습니다. 다. 다른 대학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영자신문을 발간해온 반면에 The Quill은 서울대의 첫 영자신문이었습니다.

창간을 이후에 부원들의 의의와 꾸준한 노력으로 현재 4호까지 발간되었습니다. 저희 영자신문은 지면 디자인과 내용 등 여러 면에서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망깊고 한 걸음부터라는 옛말처럼, 언젠가는 The Quill을 서울대에 걸맞은 영자신문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The Quill은 재학생들의 관심의주목 제되고 있는데, 많은 인기를 보이는 책선 중 하나는 바로 동문 인터뷰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선배님들이 사회에서 겪은 신 도전과 성공이 저희에게는 많은 것을 알려주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The Quill내에 선배님들의 참여를 확대해 동문 인터뷰뿐만 아니라 동문 기고 등 동문과의 대화의 장을 넓혀 나가려고 합니다. 세계화 시대를 함께 이끌어갈 선배 동문과 재학생들간의 생각과 관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선배님 여러분! 저희 인터뷰나 기고 요청에 적극 응해주시길 바랍니다. The Quill에 대한 많은 관심,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창간 30주년 기념 콘트

“우아하게 늙기도 힘드네”

朴 惠 蘭(독문65-69)

여성신문 편집위원장

‘나이들에 대하여’, ‘소파전쟁’ 저자



대단하게, 무려 열 두 명이 모였으니, 열 두 명이면 한국에 사는 예술(?) 중에서 두 명 빼고 다 모인 거지, 아? 그 옛날 학교 다닐 때도 이런 적이 없었다. 정원이 라곤 달랑 스무 명, 그나마 입대하러 데모 하라 안보이티브이라 연애하라 술 먹으라 도통 열 명 이상 모여본 역사가 없다. 게다가 ‘리베라’라니 뭐라나로 시작되는 이름의 학교였으니 스물이면 스물이 다 전성전 하 유아독존이었을 터.

모임이 시작된 건 졸업한지 열두 20년이 지나고서부터였다. 오로지 시간의 힘이 있었을까. 천만에. 필자의 남편도 그 대학의 다른 화가를 다녔지만 화갑이 훌쩍 지난 이 날 이때쯤 동기모임 같은 건 없다. 다 아다 시피 시간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다. 모든 생명이 썩드는 데는 하나의 필일이 필수니까. 그리고 하나같이 보수하자 우리 과 동기 중에 그런 필일이 숨어 있었던 거다.

아무튼 그렇게 왔다. 처음엔 1년에 그저 한 두 번이나 모였을까, 그러더니 어느새 찾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열심히 모인다. 그도 그럴 것이 슬금슬금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더니 금방 자식들이 결혼하는 나이가 돼버렸을뿐. 정갈 시간은 지 만대로 간다.

경조사 외에도 모임 기회는 또 있다. 오 늘처럼 외국에서 오래 살면 친구가 모처럼 귀국했을 경우이다.

얼마나 변했을까. 이반에 다녀온 온 친구는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었기 때문에 못 본 지가 어언 40년이 지났다. 함께 공부한 시간이 워낙 짧았던 탓에 옛날 얼굴

도 가물거릴만데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 모 두들 궁금증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드디어 약속시간을 같같이 맞춰 그가 나타났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하나도 안 변했다. 머리카락이 조금 늙성듬성해진 것과 얼굴에 주름이 조금 생긴 것과 여자가 조금 처진 걸 빼곤 그대로였다.

“와, 하나도 안 변했네. 머리도 새까맣고 얼굴도 썩어진 게 40년 전하고 똑같



아.”

“너학들도 고대보네, 못 알아 보면 어떡 하나 했네.”

그래, 바로 이 것이다. 옛날 친구들을 만나는 재미란, 마치 타원머신을 타기라도 한 듯 순식간에 40년 전으로 날아간다. 게다가 옛날에는 무척만 남녀공학이었을 뿐 남녀유별주의가 대세였던 터라 남녀학생 사이에 늘 서먹서먹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지금은 그 벽이 무너졌잖은가. 소꿉친구들처럼 화기애애하다. 이 모두 시대의 리믹이요 나이의 위력이다.

희한하게도 모임의 회제는 항상 두 가지다. 하나는 당시 교수님을 이야기, 그리고 나이 이야기. 그런데 교수님들 이야기도 결국엔 나이로 돌아간다.

당시 그도록 엄청난 위험과 관력으로 우리를 가축였던 교수님들 나이가 이제와 생각에 보니 겨우 마흔 즈음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변변히 감탄하고 허탈해 한다. 하긴 그 시절엔 환갑이려면 어마어마한 나이였지.

이제 우리가 예순 즈음이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우리 ‘환갑노인’이 아니다. 이렇게 옛날 친구들을 만나면 더 그렇다. 우린 서로를 남학생, 여학생이라고 부르면서 한껏 젊음에 취한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라는 말을 되새기며, 다른 또래들에 비하면 10년은 젊어 보인다면 서로를 부추겨 준다. 눈물겨운 풍자이다. 음식점 종업원들이 피식피식 웃는 것도 우리 눈엔 들어오지 않는다.

하지만 자백은 그 시효가 너무나 짧다. 동기 중에서도 유난히 팬팬해서 우리가 40대 청년이라고 부르는 남학생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

“아, 우리끼리니까 서로 젊게 보는 거야. 나 오는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몰라.

는 캄캄할 새 활발하던 분위기가 의기소침 모드로 돌변했다. 그런데, 이게 웬 조화일까. 나의 고장병이 슬금슬금 도져려고 한다. 무슨 병이냐고? 공수병이지 뭐, 그래, 난 아직 너희들보다 젊다구. 난 아직 지랄 양보 받은 적이 없으니까.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호숫가에 한껏 취한 채 나는 친구들에게 입장연설을 했다.

“나이가 어찌겠어. 그러나 자리를 양보 받으렴 정중하게 고맙다고 인사나 해. 우리 나라 노인들은 도대체 인사를 할 줄 몰라. 그저 똥한 표정이나 짓고, 젊은이들 속으로 그럴 거 아냐? 재수 없는 노인네들, 뭐 하려고 기어 나왔는지 하고, 자, 우리 좀 우아하게 늙읍시다.”

모임이 끝난 후 나는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퇴근시간도 지난 지 한참인데 버스는 빈약이었다. 노약자석은 이미 젊은이들로 채워졌다. 그 옆에 서 있으면 피곤한 젊은이들한테 눈치를 주는 것 같아 나는 간신히 버스 뒤쪽으로 몸을 움직였다. 그때 마침 대학생으로 보이는 한 젊은 여성이 일어났다. 아마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려는 모양이었다. 난 역시 재수가 좋은 속으로 패자를 부르며 짐싸게 자리에 앉았다.

버스가 갔다. 그런데 그 여학생은 내리지 않았다. 내 쪽으로 얼굴을 외면한 채가까스로 틈을 지탱하고 서 있었다. 다음 정거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갑자기 머리가 멍해졌다. 아냐, 나한테 자리를 양보한 거였던 말이야? 그런데 난 고맙다는 인사도 안 했잖아?

‘아, 나도 이제 늙었구나’라는 충격과 평소에도 비웃었던 노인네들처럼 교양 없이 굴었다는 민망스러움이 두 겹으로 나를 괴롭혔다. 괴롭다 못해 화까지 났다. 그런데 신기했다. 처음엔 나 자신에게 했었던 화가 슬금슬금 방향을 틀는 게 아닌가.

‘아니, 자리를 양보하려면 공손하게 여가 없으세요 하고 일어나야지 그냥 불쑥 일어나면 어떡하라는 거야? 아무튼 요즘 젊은이들은 씨가지가 없어. 아이고, 우아하게 늙기도 힘드네.’

차창을 바라보니 흰 추레한 할머니가 심심곳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당했다구. 그것도 학생이라면 맘도 안 해. 이전 4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발뺌 일어나타라니까.”

그러자 다른 남학생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고해성사를 한다.

“넌 겨우 이제 당했네. 난 어르신대접 받은 지 이미 오래데. 벌써 10년 꽤 간다.”

“처음엔 자존심까지 상했지만 요즘엔 젊은놈이 안 일어나면 기분 나쁘더라.”

너무나 젊고 고와서 내 눈엔 기껏해야 마흔 남짓해 보이는 여학생까지 거든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면 초등학교생이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데 뽀. 뽀수 없어. 우리끼리니까 풍썩자가 편 거지 갈 데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老·壯·靑 아울러 시대 흐름과 동행

동창회보 발자취



76년 4월 24일 창간호

동창회보 변천사

76년 4월 24일 창간

1976년 3월 30일 모교 규암캠퍼스 교수회관에서 본회 李錫鎰(8대)회장이 취임하면서 8월호(제137호)부터 현재까지 타블로이드판 40면을 제작하고 있다.

현재 재미 동창회보는 본회에서 제작한 동창회보의 필름이나 CD를 공수 받아 미주 현지 소식과 동문 업소목을 첨부해서 7천부를 발행하고 있다.

까지 잡지형태로 60면을 제작, 발행했다. 이후 2006년 7월 李錫鎰(8대)회장이 취임하면서 8월호(제137호)부터 현재까지 타블로이드판 40면을 제작하고 있다.



79년 7월 (제20호)

전면 가로쓰기 도입

본보는 95년 2월호(제203호)부터 전면 가로쓰기를 도입했으며, 용지를 종질지로 변경해 28면을 인쇄하기 시작했다. 또 시사저널 안희정주필에게 편집과 디자인에 대한 실무적인 도움을 구하고, 한국프레스센터 李錫鎰(8대)주필로부터 기사 및 제목에 대한 조언을 받아 전문화·현대화에 박차를 가했다. 더불어 6월 10일 모교 도서관 정보관리과와 협조를 얻어 본보 창간호부터 2백호까지 마이크로필름(35mm)을 제작, 영구보관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매월 마지막 주에 개최되는 각 동창회 관련 행사들을 더욱 신속하고 자세히 전달하고자 97년 2월호(제227호)부터 발행일자를 1일에서 15일로 변경했다.

24면서 32면으로 확대

98년 6월호(제243호)부터 기존의 내지(종질지) 16면과 별지(신문용지 46.6g) 8면의 이중제에 서 신문용지(54g) 24면의 일괄제대로 전환, 제작하기 시작했다. 또 2001년 3월호(제276호)부터 지면을 24면에서 32면으로 확대, 발행하고 모교의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 70여 개 연구소 등을 보다 심도 있게 홍보하기 위해 모교 소식 면을 늘렸다.

PDF·e-Book 열람

본보는 98년 12월부터 운송된 홈페이지(www.snua.or.kr)를 여러 차례 새롭게 개편했으며, 2001년 5월호(제278호)부터 현재까지 발행된 동창회보는 '지나호 보기'를 통해 한눈에 살펴볼 수

본보 창간 30주년을 계기로 동창회의 과거와 현재를 회보의 부록처럼 중심으로 삼아보았다. 이제 우리 동창회와 회보 제작진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때가 됐다. 초심으로 돌아가 보다 새롭고 안전한 기획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30만 서울대인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동창회보를 만들기 위해 '동창회보를 만드는 사람들'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있게 됐다.

또 본회는 빠른 시일내에 창간호부터 최근호까지를 PDF와 e-Book 형태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동문 여러분께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2004년 3월호(제312호)부터 내일신문 金錫鎰(8대)회장이 본회 李錫鎰(8대)회장이 취임하면서 8월호(제137호)부터 현재까지 타블로이드판 40면을 제작하고 있다.



87년 1월 (제106호)

편집·논설위원 구성

편집위원 규정 제정

76년 5월 12일 동창회보 '편집위원회 규정'을 의결하고 본회 李錫鎰(8대)회장이 당면적 편집위원장을 맡았으며, 모교 대학신문 金錫鎰(8대)주필, 신문대학원동창회 文道彬회장, 자연대 趙完奎장, 법대 金錫鎰교수를 편집위원으로 선임했다. 77년 5월 4일 모교 대학신문 金錫鎰(8대)주필, 한국일보 尹容鉉는설위원을 편집위원으로 위촉하고, 이어 7월 6일 방송통신대 李錫鎰(8대)주필을 추가로 선임해 위원회를 보강했다.

편집위원장 변경

79년 5월 31일 李錫鎰(8대)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6월 1일 元容鉉(8대)회장이 당면적 편집위원장을 맡게 됐으며, 뒤를 이어 崔主錫(8대)회장이(81년 8월 12일), 李錫鎰(8대)회장이(82년 3월 18일)이 편집위원장을 겸하게 됐다.

84년 3월 24일 본회 제10대 회장이 崔主錫(8대)회장이 선출됐다. 선임부회장이 유임된 李錫鎰(8대)회장이

부회장이 86년 9월 13일 문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0월호(제103호)로 본보 편집인의 자리를 맡게 됐다.

또 張錫鎰(8대)부회장이 92년 1월호(제166호)부터 5월호(제170호)까지 편집인으로 활약했으며, 92년 4월 17일 상임부회장에 선임된 鄭錫鎰(8대)회장이 93년 9월호(제186호)부터 2000년 2월호(제263호)까지 본보 편집인 겸 편집위원장을 맡았다.

원칙 언론인 영입

92년 9월 5일 한국일보 孫一根(8대)백상기편집장, KBS 李錫鎰(8대)해설위원장, 조선일보 崔錫鎰(8대)편집위원장을 편집위원으로 영입, 보다 전문적이고 충실한 회보의 틀을 마련토록 했다.

94년 3월 26일 본회 제15대 동창회장에 선출된 金在善(8대)회장은 5월 16일 본보 편집위원으로 모교와 언론계에 봉직하고 있는 동문 13명을 추가로 위촉했으며,



95년 2월 (제203호)

'편집위원' 명칭을 '논설위원'으로 변경했다. 이날 위촉한 위원은 KBS 崔錫鎰(8대)해설위원, 한국방송위원회 金錫鎰(8대)위원장, 안희정(8대)주필, 서울신문 李錫鎰(8대)사회부장, 한국일보 李錫鎰(8대)부장, SBS 吳錫鎰(8대)방송이사, 시사저널 安錫鎰(8대)편집장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편집위원인 모교 사회대 金錫鎰(8대)교수, 한국일보 孫一根(8대)이사, 모교 법대 金錫鎰(8대)교수, 조선일보 崔錫鎰(8대)부장, 중앙일보 崔錫鎰(8대)부장, MBC 李錫鎰(8대)부장, 경향신문 崔錫鎰(8대)부장, 연합뉴스 崔錫鎰(8대)부장, 한겨레신문 高永才(8대)부장, MBC 崔錫鎰(8대)부장, 조선일보 姜錫鎰(8대)부장 등을 논설위원으로 위촉했다.

특히 2002년 3월 15일 본회 제19대 회장에 임명된 林光錫(8대)회장이 취임한 이후 동문들의 동창회와 동창회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원고를 기고하거나 동창회를 알리려는 동문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후 2004년 7월 한겨레신문 李元容(8대)는설위원장을, MBC 보도국 辛錫鎰(8대)부국장, 조선일보 崔錫鎰(8대)부장, 중앙일보 金錫鎰(8대)부장을 영입함으로써 본보 제작에 참여하는 논설위원은 총 29명으로 증원됐다.

(정리= 安錫鎰(8대)부장)



2005년 4월 (제325호)

크를 갖게 됐다.

95년 12월 9일 SBS 吳錫鎰(8대)방송이사, 추방인 林錫鎰(8대)재판장, 본부장 鄭錫鎰(8대)교수를 논설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총 18명으로 증원됐다.

97년 1월 10일 본보 崔錫鎰(8대)선위원장이 취임한 후 KBS 金錫鎰(8대)주필, 2월 11일 崔錫鎰(8대)선위원장이 취임한 후 동아일보 崔錫鎰(8대)선위원장을 선임했다.

논설위원 29명 참여

한편 본보 金錫鎰(8대)는설위원이 KBS 부사장 鄭錫鎰(8대)이 제작하는 동안 KBS 崔錫鎰(8대)도국장이 논설위원으로 활약했으며, 99년 9월호부터 논설위원에 서울경제신문 金錫鎰(8대)주필, 매일경제신문 朴錫鎰(8대)주필, 한국경제신문 崔錫鎰(8대)주필이 합류했다.

또 본보 논설위원인 孫一根(8대)은 2000년 4월 10일 편집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편집위원 겸하게 됐다. 더불어 SBS 安錫鎰(8대)재판부장이 논설위원으로 추대됐다.

2000년 5월부터 문화일보 金錫鎰(8대)부장, 모교 언론정보학과 崔錫鎰(8대)교수, 대한매일 李錫鎰(8대)부장, 매일경제신문 金錫鎰(8대)부장, 연합뉴스 崔錫鎰(8대)부장, 한겨레신문 高永才(8대)부장, MBC 崔錫鎰(8대)부장, 조선일보 姜錫鎰(8대)부장 등을 논설위원으로 위촉했다.

특히 2002년 3월 15일 본회 제19대 회장에 임명된 林光錫(8대)회장이 취임한 이후 동문들의 동창회와 동창회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원고를 기고하거나 동창회를 알리려는 동문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후 2004년 7월 한겨레신문 李元容(8대)는설위원장을, MBC 보도국 辛錫鎰(8대)부국장, 조선일보 崔錫鎰(8대)부장, 중앙일보 金錫鎰(8대)부장을 영입함으로써 본보 제작에 참여하는 논설위원은 총 29명으로 증원됐다.

장학빌딩 건립 정성 봄에도 활짝

삼익악기 金鍾燮회장 10억원 약정

최근 삼익악기 金鍾燮(시화사업 66-70)회장이 본회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10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정했다.

金회장은 “기업인으로서 사회에 보탬이 되고, 자녀들도 보람된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자금을 주고 싶었다”며 “조금 더 가진 자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여 양국화 해소에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개발음이 일어났던 1970년대에 불도저 부속품사업을 시작한 金회

장은 1979년부터 건설관련 플랜트와 환경설비 전문업체인 “SPECOR”을 운영해왔으며, 2002년에는 독일의 세계적 파이프업체 벡스탈인과 국내업체인 삼익악기를 인수해 현재 이 분야에서 세계 5위를 달리고 있다.

金회장이 출연하는 기금은 장학빌딩 건립 후 발생하는 임대 수익금을 통해 “金鍾燮특기장학회” 명의로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삼익악기 金鍾燮회장(사진 좌)이 본회 林光洙회장에게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10억원 약정서를 전달했다.

본은 국립건설연구소·동력자원연구소 연구원 등을 자했으며, 1995년부터 경기도 안산에서 계급속 재활용, 무기화학약품 제조 및 환경처리 전문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1천만원 출연 줄이어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4일까지 10명의 동문이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본회에 1천만원씩을 출연 또는 약정했다. 출연 명단은 다음과 같다.

△蔣武煥(경계45-51)동문(5백만원씩 분할 납부) △李康秀(상회51-55)前한국은행 부총재 △成百詮(토목공학2-56)한국해외기술공사 회장 △金鍾瑞(경계58-63)세브MBC 회장 △李秉熙(화학67-71)SB&Company 사장 △李秉宰(경대원69졸)신다는 사장 △張子俊(의학70-77)보고 병리학교실 교수(2백만원씩 분할 납부) △文大源(경영71-75)동화산업 회장 △鄭海南(법학72-76)헌법재판소 사무차장(1천1백만원) △文聖勳(식품공학86-92)Diageo 코리아 이천 공장장

기금을 출연한 동문은 개인 명의의 ‘기금장학회’를 설립하게 되며, 장학빌딩 건립 후 발생하는 임대 수익금을 통해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서문회 31명 기금 보내와

지난 3월 13일 모교 동공학과(농업토목 전공) 출신들로 구성된 서문회(회장 禹義熙) 회원 31명이 10만원씩 각출해 총 3백10만원을 본회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출연했다.

지난 1990년 6월 설립된 서문회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정기모임을 통해 결속을 다지고 있다.

(表)



李鍾國 동문



鄭潤煥 동문

李鍾植·鄭潤煥동문 각 1억원 쾌척

지난 3월 29일 약대동창회 李鍾植(약학46-49)명예회장이 본회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1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정하고 2천만원을 쾌척, “李鍾植특기장학회” 명의로 모교 약대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0여 년간 약대동창회장을 역임한 李동문은 그동안 동창회 지부 및 기별조치를 강행하고, 기금 모금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또 국특약 회장,

대한약사회 부회장 등을 맡아 국내 약업계 발전과 약사들의 권익을 위해 헌신한다.

李동문은 “동문이라면 이러한 좋은 일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약대 동문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17일 일성화학 鄭潤煥(약학56-62)사장이 본회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1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정, “鄭潤煥특기장

학회” 명의로 모교 농대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인원시 남동구에서 무기화학약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鄭사장은 1999년 시화복지법인 인천보육원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젊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장학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2003년부터 농대 수임원학동문회장을 맡고 있는 鄭사장은 모교 농생대교육재단에 매년 1천~2천만원을 출연해왔을 뿐만 아니라 “일성장학회”를 통해 매년 농대 재학생 4명에게 1천6백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농대동창회·李鍾大동문 5천만원씩 출연

지난 3월 16일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회장 尹勳煥)가 본회에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5천만원을 출연하기로 약정, 1천만원을 보내왔다.

그동안 매년 재학생 2명에게 장



학금을 지원해온 농생대동창회는 이와는 별도로 장학빌딩 건립 후 발생하는 임대 수익금으로 ‘농생대동창회 특기장학회’를 설립,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尹회장은 “새 회원명부를 발간해 건립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며, 연내 나머지 4천만원을 완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17일 대림ENC 李鍾大(천문기상69졸·공업화학 80-82)대표(사진)가 본회에 배

孫宗植회장 취임 축하

본회 林光洙회장 등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3월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8층 메트로폴리탄에서 C그를 孫宗植(법학57-61 본회 부회장)회장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취임 축하연을 열고 축하패를 전달했다.

이날 모인에는 金在淳·林光洙·權秉植·金炳珠·鄭元植·孫一根·韓斗淵·尹勳煥·李吉女·金哲洙·裴命仁·閔丙燾·李洪九·李世中·李金龍·孫宗植·李相禹·何權泰·南正鉉·金鳳九·南仲九·李炯均·鄭興澈·朴英俊·劉賢夫·金明子·白鶴之·朴泳俊·李鉉雄·洪龍慶·李圭燾·成相哲·金東普·金仁圭·朴聖姬·李秉俊·許龍壽 등이 참석해 축하인사를 나눴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기업환경 개선에 한 몫”

“孫宗植회장님은 지난 96년부터 관악회 이사와 총동창회 부회장을 맡아 총동창회 일에 몰신양면으로 도와주셔서 남다른 친근감과 고마운 마음을 늘 갖고 있다”며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한상의 회장을 맡아 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큰 숙제를 앞에 두고 고민도 많이 하셨습니다. 孫회장님의 뛰어난 경영지적 수완으로 이 나라

경제에 새 바람을 불어넣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孫宗植회장은 “바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성대한 축하연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각종 규제, 반 기업적 서 등으로 어려운 기업환경을 극복해 한국 경제가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南)

마 평

李元勸



장학빌딩 건립기금을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금계좌번호 : 국민은행 827-01-0248-017 / 신한은행 343-05-019330

농협 069-01-272391 / 조흥은행 397-01-100736 [예금주 : (재)관악회]

◆10억원

△김종섭 (사회사업66-70)

◆1억원

△이예식 (약학46-49)

△정윤환 (임학56-62)

◆5천만원

△농업생명과학대학동학회

△일산회 : 김진희 (축산59-65)

△이종대 (천문기상학69출)

◆1천1백만원

△정해남 (법학72-76)

◆1천만원

△김종서 (경제학58-63)

△문대원 (경영학71-75)

△문성훈 (식품공학86-92)

△성백천 (토목공학52-56)

△신방호 (경제학67-71)

△이강수 (상학51-55)

△장자준 (의학70-77)

◆1백만원

△김교성 (전기공학51-55)

△유종택 (법학50-54)

△이병복 (의학54-60)

△이종환 (의학51-57)

△이학숙 (회화54-58)

△전발근 (영어교육47-52)

△지철근 (전기공학45-51)

△전영환 (토목공학67-74)

◆50만원

△김 신 (경영학75-79)

△신현우 (사회교육50-55)

△조달호 (AMP 7기)

◆30만원

△김상호 (중어중문58-62)

△이병효 (공업교육63-67)

△최병주 (생물교육56-60)

◆20만원

△김동호 (건축학70-74)

△변정훈 (건축학70-77)

△신경석 (토목공학49-55)

△이민철 (응용화학67-71)

△이한동 (행정학54-58)

△임병문 (토목공학58-64)

△정규능 (화학공학58-64)

△정우식 (항공공학80-84)

△전진현 (고교미술77-83)

◆10만원

△강현석 (금융공학64-68)

△곽영철 (농공학59-65)

△기준옥 (농공학69-73)

△권용관 (AMP 58기)

△권희교 (농공학68-75)

△기준옥 (경영학80-90)

△김동환 (농공학67-74)

△김상진 (건축학81-85)

△김수환 (화학64-66)

△김열규 (토목공학70-74)

△김영권 (경영학80-84)

△김영철 (경영학79-85)

△김영철 (농공학59-65)

△김인섭 (농공학64-71)

△김재우 (농공학69-73)

△김진수 (농공학70-75)

△김창원 (수의학53-57)

△김철중 (농공학64-71)

△김종진 (농공학71-78)

△남광현 (농공학62-66)

△명동근 (경제학45-52)

△박영표 (자원공학47-54)

△박용규 (조선공학62-71)

△박성수 (농공학73-80)

△박용섭 (농공학73-80)

△백선호 (치의학73-79)

△서택동 (농공학73-80)

△성낙현 (응용화학71-75)

△신종덕 (AIP 15기)

△안동만 (항공공학66-72)

△안치원 (농공학73-80)

△양동규 (치의학53-57)

△여현태 (보대원65-67)

△오종출 (농공학77-84)

△오준석 (농공학72-76)

△우귀희 (농공학63-67)

△유석형 (농공학58-64)

△윤성민 (AMP 13기)

△윤여홍 (농공학76-83)

△이관희 (의학75-82)

△이동남 (국악66-70)

△이봉호 (치의학86-90)

△이부영 (의학52-59)

△이성민 (농공학63-67)

△이상호 (농공학67-74)

△이성철 (농공학71-78)

△이재기 (농공학53-57)

△이재선 (재료공학69-73)

△이정호 (치의학60-66)

△이희발 (건축학72-80)

△임병규 (농공학60-66)

△임영복 (농공학57-63)

△임현태 (원자핵공학78-82)

△장학효 (농공학67-74)

△장재홍 (기약57-61)

△전성근 (농공학75-82)

△정문희 (행정학59-65)

△정순천 (응용화학66-70)

△정원복 (대학원81출)

△정찬영 (화학공학50-58)

△조유동 (치의학55-59)

△지근진 (농공학58-64)

△지명철 (법학61-65)

△최봉석 (정치학69-73)

△최영호 (농공학72-79)

△최영준 (정치학55-60)

△한정민 (공업교육63-67)

△황경구 (농공학56-61)

(2006년 3월 23일까지 출연 해주신 분)



장학빌딩 건립 모금운동

서울대인은 벽돌 한 장 쌓는 정성을

모금 개요

■모금 현황

- 회관 신축 소요 자금 총 3백억원 중 2백35억원 확보
- (동원회 기금 1백억원, 완공후 회당 50억원, 김창하 고문 10억원, 홍성대 장학이사 10억원, 신명규 이사 15억원, 오성경-이현숙 부원장 10억원, 새영부 부회장 10억원, 김황우 부원 10억원, 김은중 부원 10억원, 김홍신 부원 10억원 출연)
- 향후 모금 목표 - 65억원

■모금 방법

- 직접 납부 또는 약정 (5년 분할 납부 가능)
- 1천만원부터 기금장학회 설립
- 5천만원부터 독자장학회 설립
- 비영리 출연 가능
- 기부·출연·유증에 의한 출연 허용 (원금·예금·부동산·유가증권 등)
- 기금 및 독자장학회 설립 내용
- 은환금리 이상의 이자 지급 - 개별 장학금으로 관리
- 출연자가 장학금 지정
- 해외거주 동문 출연 허용 - 출연자가 장학생을 지정 (타대생 가능)

출연자에 대한 예우

- 10억원 이상 명예의 전당 동판 명세록에 출연자 성명 2인 장학빌딩 연회실 및 회의실, 예식홀 대관 무료 특자장학회 설립 및 개인별 관리
- 5억원 이상 명예의 전당 동판 명세록에 출연자 성명 2인 장학빌딩 연회실 및 회의실, 예식홀 대관 무료 특자장학회 설립 및 개인별 관리
- 5,000만원 이상 명예의 전당 동판 명세록에 출연자 성명 2인 장학빌딩 연회실 및 식당, 회의실 이용시 할인 특자장학회 설립 및 개인별 관리
- 1,000만원 이상 명예의 전당 동판 명세록에 출연자 성명 2인 장학빌딩 연회실 및 식당, 회의실 이용시 할인 특자장학회 설립 및 개인별 관리
- 10만원 이상 장학빌딩 명세록에 출연자 성명 2인



간호대학동창회

신입회원에게 꽃다발 선사

간호대학동창회(회장 俞淑子)는 지난 3월 22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입회원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俞淑子회장은 인사말에서 "신입 회원들이 모두 동창회 회비를 완납하였다고 약속한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도 계속 방학자가 아닌 참여자로 활동해 주길 바라고 신선한 아이디어로 동창회에 활력을 넣어달라"고 당부했다.

신입회원 47명은 대표해 오은정 동문은 金善珠시인의 '꽃'에 빗대어 "우리는 동창회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꽃이 되고 싶다"는

멋진 담사로 선배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이어 최근 장학금으로 3천만 원을 출연한 李倫京(65-69 중무병원 부원장)동부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에 따라 同會는 동창회 장학금 외 故 李煥齋명예교수, 金朝連·李梅京동문, 시카고지구 장학금을 운용하게 됐다.

이날 총회에서 사업계획안 심의를 통해 올해부터 '이유회 및 베틀시장' 대신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기로 의결했으며 나머지 바자회, 골프·등산모임, 회보 발간, 재학생 지원 사업 등은 전년대와 동일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의과대학동창회

李亨模동문 등 합촌대상 받아



최로부터 宋斗濤동문 부부, 河權益회장, 李亨模동문 부부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河權益)는 지난 3월 27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의과계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에 공헌한 동문에게 제7회 합촌대상을 시상했다.

이번 수상자로, 학술연구부문에 美北지니아 의과대학 李亨模(49종) 명예교수, 의료봉사부문에 李熙相(53종)前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 회장, 사회공헌부문에 중앙북지문화연구소 宋斗濤(50-

56)이사장을 선정하고 상패와 수급 메달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朱權源(43종)·權權益(41-47)·金英均(43-49)원로회장과 申相珍(79-91)국회의원 등 동문 2백여 명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

했다.

이날 총회에서 회원조직 관리, 대내외 진북행사 개최, 모교 행사 및 학생활동 지원, 회합법부 제작, 지회장 유대장과 등 물에 주 요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 4억 6백여 만원을 확정했다. 특히 올해 예산은 안회비와 각종 전조금 이 크게 증기되는데 힘입어 지난해 대비 1억2천여 만원 증액됐다. 지난해 후남여성예회장과 河權益회장이 각각 2천만원, 19회 동회비가 1천만원, 金熙(44-48)·金明坡(57-63)동문과 39회 동회비가 5백만원씩 출연해 총 1억1백여 만원의 발간기금을 거뒀다.

同會는 매년 총회와 송년의 밤 행사가 주중에 개최돼 회원들의 참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올해 송년의 밤은 12월 셋째 토요일(16일), 총회는 매년 3월 마지막 토요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식전행사로 '세계 네 번째 발기부전 치료제 자이데나의 모든 것'이란 제목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채담방(5월·10월), 홈페이지 제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AIC동창회

宋官浩동문 대상 수상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동창회(회장 金日洙)는 지난 3월 15일 서울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 및 제2회 AIC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한국인터넷진흥원 宋官浩(3기·전자공학73-80)원장이 AIC대상을 수상했다. 宋官浩는 국내 인터넷 이용 활성화 촉진 및 대한민국 인터넷의 국제적 위상 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에 이어진 총회에서 회칙 개정을 통해 임원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으며 金日洙회장을 재선임했다. 운영 사업으로 골프 대회(4월·9월), 사운회(5월), 업

음악대학동창회

徐桂淑회장 선출



음악대학동창회(회장 李在淑)는 지난 3월 22일 서울 뉴서울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에 모교 음악대학 徐桂淑(기악56-60)명예교수(사인)를 선출했다. 한편 同會는 총회에 앞서 기악과 4년 송영현 군에게 장학금 3백 34만원을 전달했다. (南)

동문 작품 지상 전시회

<작가역력>

- ▲75~79년 모교 회화과 졸업
- ▲79~82년 대학원 (서양화 전공) 졸업
- ▲94~04년 개인전 5회
- ▲제1회~제14회 서울·대전
- ▲한국미술협회전
- ▲한국의 현대미술 100인전
- ▲신화랑 200인전
- ▲2004 아트코리안대전
- ▲한국현대미술전
- ▲2004 화랑미술제
- ▲현재 한국미술협회 회원



韓 蕙 慶 作 '추백-나무', 모래+Oil on Canvas, 53×46cm, 2004

2005년도

동 창 회 결 산 공 고

대차대조표

2006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자산		부채	(183,288,077)
1.유동자산	(4,486,689,194)	1.유동부채	(66,864,416)
(1)당해자산	4,486,689,194	1)계수금	(4,969,870)
1)현금과 예금	4,384,950,454	2)미수금	31,453,813
2)미수금	0	3)외상매입금	0
3)미수수익	77,711,913	4)신수수익	20,440,733
4)발행 어음	0	2.22정부채	(96,423,661)
5)유가증권	0	1)수입부채	0
6)예치잔금	21,006,827	2)외채금리충당금	96,423,661
		가.본	(4,552,870,539)
		1.자본금	(4,161,271)
2.고정자산	(10,289,413)	1)자본금	
1)자본보충금	255,750	1)기본금	4,161,271
2)장신전환차입금	0	2)이익잉여금	(4,329,509,259)
3)비상	75,196,991	1)이익잉여금	4,329,509,259
합계	16,165,538	2)이익잉여금	(4,329,509,259)
		합계	4,486,689,194

손익계산서

2005. 1. 1부터 2006. 12. 31까지

(단위 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1.매출액	(324,000,000)	151.부가가치세	68,437,870
1)정공로	324,000,000	161.주식차입 비용	0
2.매출원가	(608,200,010)	171.지급수수료	646,408
1)간접비용	608,200,010	5.사업(영업)손	(1,563,516,750)
3.매출총이익	(284,200,010)	6.영업외 수익	1,339,870,409
4.사업이익	149,485,565	1)회전회비	227,424,310
1)인건비	91,651,370	2)수입이자	20,440,733
2)회전비	12,668,782	3)환조금	30,488,196
3)여비 교통비	11,477,400	4)장수익	8,274,000
4)전산화비용	32,036,876	7.영업외 비용	(2,487,242)
5)사무비	23,071,370	1)채권채무상환	0
6)세금과 공과	6,788,070	2)상손실	88,942
7)보험료	0	3)기부금	0
8)회계제정비용	5,244,421	4)기금회수	0
9)임가상각금	124,297,033	8.유가증권 평가손	2,378,500
10)전환차입금	56,052,612	8.특별손실	0
11)직접차입비	567,051,516	9.당기이익(손)이익	(128,872,840)
12)주식차입비	0	10.당기손	0
13)당기손	1415,750	11.당기이익	(128,872,840)

위와 같이 공고함
2006. 3.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林 光 洙

상과대학동창회

장학금·최우수졸업상 수여

상과대학동창회(회장 洪龍澤)는 지난 3월 7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2006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상대동창회는 경영학과 및 경제학과 재학생 39명에게 총 7천6백74만원을 전달했다. 이 금액은 단과대학동창회 중 가장 큰 액수다.

이날 장학금을 출연해 준 동문은 洪龍澤회장을 비롯해金正鎰(경제52-56)·沈鼎泰(경제53-57)·金榮奎(경제55-59)·池昌壽(경제55-59)·洪性宙(상학58-64)·朴榮珠(경제59-63)·朴容鎰(경제59-65)·崔昌杰(경제60-64)·鄭國泳(경제61-66)·李壽益(경제61-65)·俞鍾茂(상학62-66)·金國柱(경제64-68)·金榮季(경제64-68)·朴哲遠(상학64-68)·沈載俊(상학64-68)·金正泰(상학66-70)·成壽鶴(무역66-70)·柳時卓(경제68-72)·金在鉉(경제69-73)·南 鎰(경제69-76)·李在慶(경제69-73)·李鍾基(경영69-73)·李鍾烈(경영69-73)·李煜培(경제69-73)·全相國(경영70-74)·文大源(경영71-75)·安武台(경영71-75)·許承求(무역72-76)·李載日(경영73-77)·金炳玉(경영83-87)·洪慶秀(경영83-87)동문 등이다.

상대동창회 장학금은 매년 특지자를 선정받아 마련



되며 일부는 기금에서 지원한다.

한편 이날 최우수졸업상은 김기복(경영)·우성훈(경제)군에게 수여됐다. 또 '섬급적인 광고의 조건에 대한 시대분석', '부동산 정책의 효과분석'이란 주제의 논문을 발표한 한다희(경영)·윤선영(경제)양에게 최우수졸업논문상을 시상했다. 이들에게는 부상으로 디지털카메라가 전달됐다.



IP동창회

통합수첩 발간 등 사업안 확정

IT벤처산업과정동창회(회장 金明浩)는 지난 3월 8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3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업계획 심의를 통해 통합수첩 발간, 하계 워크숍, 한 해를 빛낸 IP인상 제정, 동창회관 건립기금 납부인 등을 확정했다.

金明浩회장은 "전임 회장단이 마련한 초석 위에 1cm의 성과를 쌓았다"며 "자재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갔다"고 말했다. 또 총동창회관 정회원들 건립기금 납부인과

관련해 "총동창회에 소속된 동창회로서 장학사업에 동참하지는 못에서 사업안으로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 한 해 IP동창회를 이끌어갈 회장단은 다음과 같다.

▲수석부회장 : 마스터조인터내 서번 李在佑(21)대표 ▲감사 : KDN 金在鎰(1기)이사, 메인택 김종연(21)대표, 한일정보통신 韓壽澤(3기)대표, 동아특송 윤백호(4기)대표 ▲총간사장 : 노메드 테크놀로지 安智源(1기)고문 ▲골프동호회장 : 탭미정보통신 李東杰(1기)대표 ▲등산동호회장 : 단주실업 宋貴澤(3기)상무

임학과 63학번 동기회

옛 실습지로 기념 여행

농생대 임학과 63학번 동기회(회장 李鍾俊)는 지난 2월 27일 전남 광안 백운산으로 졸업 40주년 기념 여행을 다녀왔다.

부부동반으로 떠난 10여 명의 동문들은 고교친구로부터 수액을 재치하는 현상 등을 둘러보며 하삼사들의 추억을 떠올렸다.

李鍾俊회장은 "임학과는 4학년 때 모교 연습실(지리산·백운산 일대)에서 한 달간 현장실습을 하는 전통이 있었다"며 "4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그 장소를 찾아 감회가 새로웠다"고 말했다.

임학과 63학번 동기회는 25명이 졸업해 현재 국내에 16명이 남아

매년 세 차례의 정기모임을 가지며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동승클럽

창동서 새 회장단 구성

문리대 65학번 모임인 동승클럽(회장 李在慶)은 지난 3월 2일 서울 선릉역 현대빌딩 6층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단을 구성했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李在慶(철학)회장이 재선임됐으며, 金大起(외교)·金永珠(독문)·朴熙俊(정치)·宋常熙(지질)·梁利鳳(물리)·柳慶南(언어)·李秀千(사회)·李永吉(동물)·崔帝元(정치)동문이 부회장을 맡기로 했다. 또 감사에 梁相泰(동물)동문, 총무에 金壽泰(철학)동문이 각각 선출됐다.

공대 여성동문회

4월 28일 모교 방문행사

공과대학 여성동문회(회장 金銀愛)는 오는 4월 28일 오후 5시 모교 관악캠퍼스 공과대학 39층 지하층 다목적실에서 회원 1천명들과 기념 출격대미대 행사를 개최한다.

金銀愛(건축71-75)회장은 "우리 동문회가 지난 2월을 지나면서 회원 1천명 시대를 맞이했다"며 "이를 기념하고 동문들의 미려를 다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 프로그램 중 '추억의 사진' 슬라이드 쇼를 위해 동문들의 사진을 접수하고 있다.

(문의 : 877-0568)



한울회

인도 뉴델리서 전시회

마태 출신 여성 동문들로 구성된 한울회(회장 金英蘭)는 지난 2월 10~15일 인도 뉴델리 ISCAC Gallery에서 '한국에서 인도까지 (From Korea to India)'라는 주제로 작품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會회장을 비롯해

동문 22명이 40여 점의 그림을 출품해 현지 교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1980년에 결성된 한울회는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파리 등 해외에서 매년 작품전을 개최하며 활발한 활동을 보여왔다. 또 매년 '종이전', '휴전', '섬유전', '소품전', '관화전' 등의 다양한 주제로 전시회를 꾸미며 동문간의 예술교류를 촉진시키고 있다. (南)

2005년도

(재) 관악회 결산공고

대차대조표

2005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과목	금	부채	금	금
1. 유동자산	7,369,198,937	1. 유동부채	(50,359,282)	
(1) 현금·예금	7,358,198,937	1.1 차입금	5,898,380	
(2) 매출채권	7,199,001,551	2. 유동채권	2,411,010	
(3) 장·단기투자증권	2,411,010			
(4) 매출채권	56,181,170	3. 유가증권	3,278,570	
(5) 장·단기투자증권	73,742,498	4. 유가증권	7,938,000	
(6) 장·단기투자증권	1,005,000	5. 유가증권	91,700,000	
(7) 장·단기투자증권	28,673,390	6. 유가증권	6,820,292	
(8) 장·단기투자증권		7. 유가증권	(1,096,211,871)	
(9) 장·단기투자증권		8. 유가증권	1,059,888,684	
(10) 장·단기투자증권	22,175,827,719	9. 유가증권	95,548,495	
(11) 유가증권	413,138,313	10. 유가증권	1,146,582,623	
(12) 유가증권	91,582,672			
(13) 유가증권	912,000,000			
(14) 유가증권	1,962,072			
(15) 유가증권	1,261,856,041			
(16) 유가증권	665,715,410			
(17) 유가증권				
(18) 유가증권	1,077,258,081			
(19) 유가증권	462,321,641			
(20) 유가증권	413,138,313			
(21) 유가증권	412,011,238			
(22) 유가증권	138,399,344			
(23) 유가증권	138,399,344			
(24) 유가증권	501,43,900			
(25) 유가증권	25,727,224			
(26) 유가증권	79,781,218			
(27) 유가증권	79,015,596			
(28) 유가증권	153,220			
(29) 유가증권	3,533,036,662			
(30) 유가증권				
(31) 유가증권				
(32) 유가증권				
(33) 유가증권				
(34) 유가증권				
(35) 유가증권				
(36) 유가증권				
(37) 유가증권				
(38) 유가증권				
(39) 유가증권				
(40) 유가증권				
(41) 유가증권				
(42) 유가증권				
(43) 유가증권				
(44) 유가증권				
(45) 유가증권				
(46) 유가증권				
(47) 유가증권				
(48) 유가증권				
(49) 유가증권				
(50) 유가증권				
(51) 유가증권				
(52) 유가증권				
(53) 유가증권				
(54) 유가증권				
(55) 유가증권				
(56) 유가증권				
(57) 유가증권				
(58) 유가증권				
(59) 유가증권				
(60) 유가증권				
(61) 유가증권				
(62) 유가증권				
(63) 유가증권				
(64) 유가증권				
(65) 유가증권				
(66) 유가증권				
(67) 유가증권				
(68) 유가증권				
(69) 유가증권				
(70) 유가증권				
(71) 유가증권				
(72) 유가증권				
(73) 유가증권				
(74) 유가증권				
(75) 유가증권				
(76) 유가증권				
(77) 유가증권				
(78) 유가증권				
(79) 유가증권				
(80) 유가증권				
(81) 유가증권				
(82) 유가증권				
(83) 유가증권				
(84) 유가증권				
(85) 유가증권				
(86) 유가증권				
(87) 유가증권				
(88) 유가증권				
(89) 유가증권				
(90) 유가증권				
(91) 유가증권				
(92) 유가증권				
(93) 유가증권				
(94) 유가증권				
(95) 유가증권				
(96) 유가증권				
(97) 유가증권				
(98) 유가증권				
(99) 유가증권				
(100) 유가증권				

위와 같이 공고함

2006. 3.

(재)관악회 이사장 林光洙

손익계산서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

(단위: 원)

과목	금	과목	금
1. 매출계	(330,198,000)	17. 경비	2,868,140
1.1. 매출계	196,544,008	17.1. 경비	2,868,140
2. 매출계	133,654,000	17.2. 경비	227,501,347
3. 매출계		17.3. 경비	(347,462,296)
4. 매출계		17.4. 경비	(2,868,140,017)
5. 매출계		17.5. 경비	
6. 매출계		17.6. 경비	
7. 매출계		17.7. 경비	
8. 매출계		17.8. 경비	
9. 매출계		17.9. 경비	
10. 매출계		17.10. 경비	
11. 매출계		17.11. 경비	
12. 매출계		17.12. 경비	
13. 매출계		17.13. 경비	
14. 매출계		17.14. 경비	
15. 매출계		17.15. 경비	
16. 매출계		17.16. 경비	
17. 매출계		17.17. 경비	
18. 매출계		17.18. 경비	
19. 매출계		17.19. 경비	
20. 매출계		17.20. 경비	
21. 매출계		17.21. 경비	
22. 매출계		17.22. 경비	
23. 매출계		17.23. 경비	
24. 매출계		17.24. 경비	
25. 매출계		17.25. 경비	
26. 매출계		17.26. 경비	
27. 매출계		17.27. 경비	
28. 매출계		17.28. 경비	
29. 매출계		17.29. 경비	
30. 매출계		17.30. 경비	
31. 매출계		17.31. 경비	
32. 매출계		17.32. 경비	
33. 매출계		17.33. 경비	
34. 매출계		17.34. 경비	
35. 매출계		17.35. 경비	
36. 매출계		17.36. 경비	
37. 매출계		17.37. 경비	
38. 매출계		17.38. 경비	
39. 매출계		17.39. 경비	
40. 매출계		17.40. 경비	
41. 매출계		17.41. 경비	
42. 매출계		17.42. 경비	
43. 매출계		17.43. 경비	
44. 매출계		17.44. 경비	
45. 매출계		17.45. 경비	
46. 매출계		17.46. 경비	
47. 매출계		17.47. 경비	
48. 매출계		17.48. 경비	
49. 매출계		17.49. 경비	
50. 매출계		17.50. 경비	
51. 매출계		17.51. 경비	
52. 매출계		17.52. 경비	
53. 매출계		17.53. 경비	
54. 매출계		17.54. 경비	
55. 매출계		17.55. 경비	
56. 매출계		17.56. 경비	
57. 매출계		17.57. 경비	
58. 매출계		17.58. 경비	
59. 매출계		17.59. 경비	
60. 매출계		17.60. 경비	
61. 매출계		17.61. 경비	
62. 매출계		17.62. 경비	
63. 매출계		17.63. 경비	
64. 매출계		17.64. 경비	
65. 매출계		17.65. 경비	
66. 매출계		17.66. 경비	
67. 매출계		17.67. 경비	
68. 매출계		17.68. 경비	
69. 매출계		17.69. 경비	
70. 매출계		17.70. 경비	
71. 매출계		17.71. 경비	
72. 매출계		17.72. 경비	
73. 매출계		17.73. 경비	
74. 매출계		17.74. 경비	
75. 매출계		17.75. 경비	
76. 매출계		17.76. 경비	
77. 매출계		17.77. 경비	
78. 매출계		17.78. 경비	
79. 매출계		17.79. 경비	
80. 매출계		17.80. 경비	
81. 매출계		17.81. 경비	
82. 매출계		17.82. 경비	
83. 매출계		17.83. 경비	
84. 매출계		17.84. 경비	
85. 매출계		17.85. 경비	
86. 매출계		17.86. 경비	
87. 매출계		17.87. 경비	
88. 매출계		17.88. 경비	
89. 매출계		17.89. 경비	
90. 매출계		17.90. 경비	
91. 매출계		17.91. 경비	
92. 매출계		17.92. 경비	
93. 매출계		17.93. 경비	
94. 매출계		17.94. 경비	
95. 매출계		17.95. 경비	
96. 매출계		17.96. 경비	
97. 매출계		17.97. 경비	
98. 매출계		17.98. 경비	
99. 매출계		17.99. 경비	
100. 매출계		17.100. 경비	

“이제는 여성동문들이 하나 될 때예요”

창간 30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

金花中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대답: 본보 차장김정은실위원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지난 3월 2일 金花中(간호63-67) 前보건복지부 장관이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 제16대 회장에 취임했다. 김회장은 당초 일부 반대가 있다는 우려와 달리 2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임 회장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율 받고 당선돼 전직 장관이 여협 회장을 맡은 첫 번째 사례가 됐다.

김회장은 장관 재임 당시 담배 값 인상과 질병관리본부 설립 등 커다란 사업들을 독심 있게 밀고 나간 것으로 유명하다. 김회장의 그 같은 소신과 추진력이 여협에서 어떻게 발휘될지 각계가 주목하고 있다. 김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개인사 등에 대해 물어보았다.

— 단념 소감 한마디.

“책임을 무겁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도 앞서고요. 21세기에 맞는 여성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갖춰야 한다는 사명감이 절실히 느껴집니다. 여협은 최근 발전 없이 많은 내분을 겪어왔어요. 이래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金正禮 前보건복지부 장관이 저에게 회장직을 감당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솔직히 한창 동안 고민했죠.”

— 여협에 대해 소개를.

“여협 공히 우리 나라 여성단체를 대표하는 곳이지요. ‘한국여성단체연합’ 같은 진보 단체도 있지만 여러 성격의 단체를 두루 포괄하고 있는 여협이야말로 우리 나라 여성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본회 산하에 35개 회원단체와 16개 시도 협동회원단체가 있고 그 아래 다시 시·군·구 별로 2백34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1959년 창립 이래 45년간 여성운동의 본거지로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金活蘭·李敬璽 씨 등 여성운동에 앞장섰던 역대 회장들께서 오늘날의 여협을 이끌어 오셨죠.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비례대표 여성 50% 할당, 호주제 폐지 등의 폐거는 일선의 염원을 생각지 않고 여성에게 책임진 공약을 벗기고, 여지도 사립대학 담당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야 말겠다는 많은 우리 선배들의 헌신적인 노고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 회장 선출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하셨지.

“다소 불협화음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정치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가 여협 회장이 되는 것을 원치 않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저는 정치를 하려고 여협에 온 것이 아니라 추락하는 여협을 위해 일하겠다고 온 것입니다. 이런 의지를 전할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선거 당시 참석자 1백20명 가운데 5명만이 반대표를 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특히 3월 14일 회의에서 여협이 하나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날 회의에는 모든 회원단체가 참석했어요. 그 리고 제안한 안건에 반대하러려고 했지만 ‘화합하고 발전해 부끄럼지 않도록 열심히 하자’고 설득했죠. 회의를 마치고 함께 어울린 모임을 통해 이제는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예산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첫째로 예산이 있어야 하니까 제일 중요하죠. 과거에는 여협에 많은 지원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10년 동안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싸움만 해왔으니까요. 설득력 있는 사업

나라 살림 돕는 사업 펼쳐나갈 터 성범죄 강력히 처벌해야 근절될 것

계획이 있어야 예산도 얻을 수 있어 저는 이시회를 통해 새로운 사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나라 살림에 참여하자는 목표 아래 네 가지 사업계획을 세웠지요. 나라 살림도 정부 혼자 끝낼 것으로는 어렵습니다. 나라 살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방정부 기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거죠. 네 가지 가운데 첫째는 안전사업입니다. 전기·가스·식물 안전사업이 그것이지요. 둘째는 출산 및 건강가정 운동입니다. 출산과 건강가정은 건강한 사회의 기반이니까요.

셋째는 정부정책 바로 알기, 넷째는 여성 정책개발 운동 등입니다. 정부 정책을 제대로 알아야 오히려 하고 비판도 할 수 있지요. 또 ‘담의 공원을 받기 힘든 현실



사고방식은 바뀌어야지요. 남편과 아내 모두가 육아와 가사를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가 정착해야 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 사회에서 리더로서 일하면 집안 살림을 해야 할 사람이 나와서 큰소리친다며 마치 남성의 일을 빼앗아 간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남녀의 사회적 역할 개념도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성이 아이를 낳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보육시설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해요.”

— 성범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우리 나라가 여성을 너무 큰 대접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성의 부속품인 대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七去之惡’을 내세우면서 여성을 억압했죠. 제가 총청남도 여성정책개발위원을 맡았을 당시 여성에 관한 논문들을 연구 조사했더니 70년대부터 여성운동이 시작됐고 80년대 중반부터 여성의 복지에 관해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양성 평등을 얘기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처 변하지 않아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 법조계에서 너무 관대한 것 같은데.

“성폭력 규제법의 경우 여성들의 주장에 의해 만들어진 까닭인지 법 집행 과정에서 소홀히 다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들 성폭행 사건도 관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데 너무 가볍게 다뤄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아동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생을 망치는 중대 범죄인만큼 엄하게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봐요. 여성계도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겠지요.”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출산 사태에는 네 가지 원인이 있어요. 원인을 제거해야겠지요. 첫째는 경제적 부담이 이 문제를 해결해주면 아이를 낳을 겁니다. 경제적 부담이란 육아·교육·주택비 등이겠지요. 두 번째는 사회적 부담, 다시 말하면 여성이 사회에 진출할 때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거지요. 출산과 육아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건데 어떻게 되지 않도록, 오히려 가산점을 주든가 해야 아이를 낳지요. 세 번째는 앞에서 말했듯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결혼하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모델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건강한 가정은 돈을 벌지 이혼 또는 가정불화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총리실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연석회의를 구성했네요. 그 자리에 스님이나 목사 같은 종교계 분들도 참석하

속에서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기만 약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여성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결정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계획을 내놓자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호응, 지원을 약속 받은 상태입니다. 정부 지원도 가능하겠지요.”

—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는지 여성의 사회 진출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걸림돌이 있다면.

“육아와 가사 노동이겠지요. 많은 여성들이 아직도 육아를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사회활동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의 경우 육아와 가사를 돕는다고 해도 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 컷은 출산 문제에는 가치관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종교계 지도자들이 설득할 경우 효과가 있을 테니까요. 아이를 낳지 않으면 국가경쟁력 기반이 흔들리는 만큼 백방으로 노력하는 것이지요.

— 보건복지부 장관, 대통령 특보 등을 역임하셨는데 보람된 점이나 아쉬웠던 점은 어떤가요.

“1971년부터 모교 보건대학원에 재입학한 점 보진 분야에서 하고 싶었던 일들이 많았어요. 장관이 되면서 30여 년 동안 쌓였던, 하고 싶었던 것들을 실천할 수 있게 됐지요. 가장 잘 했다 싶은 건 질병관리본부를 만들어 우리 나라에서 전염병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일입니다. 그 결과 사스와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당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담배 값 인상과 건강보험 통합도 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 분야 로드맵을 만든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로드맵 작성은 교수로 오랫동안 봉직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로드맵을 실현하는 데는 또 다른 힘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것을 실현할 가장 적당한 분이 **김영삼** 前장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관 재임 시 활동했던 전 이익단체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관련된 이익 단체가 4백68개나 됩니다. 그들이 서로의 이익을 주장하느라 거의 매일같이 틀러나가고 그랬죠. 하지만 소신껏 일 처리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 담배 값 인상 때 말도 많았는데 여론 기류의 반대를 어떻게 뿌리치셨는지.

“미려지향적이며 정교로운 길을 할라치던 방법으로 한다면 무엇이든 안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담배 값을 인상시켜 흡연율을 낮추는 건 정교로운 일이지, 정 소년처럼 담배를 싸우려고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금연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담배 값 인상 공백을 한동안 늦추지 않았어요. 당시 거의 모든 장관들이 반대해 어려움을 겪긴 했죠.”

— 장관 재임시절 드라마에도 출연하신 것으로 아는데.

“‘안구정 종갓집’이라는 시트콤이었을 거예요. 그 시트콤의 소재를 보건복지부가 공급했어요. 보건복지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출연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드라마에 나오게 됐어요.

재임 기간동안 방송이나 신문 인터뷰 요청을 거절한 적이 없었어요. 국민들한테 정부가 하는 일들을 납득시키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흔히 각종 단체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바로 완가보다 반대부터 하고 보니 쉽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혼란만 가중 되잖아요. 장관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국민을 나쁘게 할 리가 있었어요.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알려주고 드라마에 출연했던 거죠.”

— 집안 사정과 성장과정을 전하십니까.

“논산에서 산다 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중학교 3학년 때 만났잖아요. 그때부터 과정을 밟아 왔어요. 특히 어머니가 고생하셨죠. 아버지 뒷바라지 다 하시느

라 힘든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지 못해 마음고생도 심하셨고요.”

— 술은 좀 하시는지.

“습관이 있으면 부위까지 맞추려 조금 술만 마시는 못했죠.”

— 하계로 부르시는 노래가 있다면.

“예전엔 ‘선구자’만 부르다 군수 부인이 된 뒤 ‘트로트도 알아야 한다’ 싶어 유희카 테이프를 사다 남편과 연습했어요. 남편은 아직도 ‘선구자’밖에 못 부르는데 저는 패티김의 ‘마련 때문에’도 불러요.”

— 남편이신 **高玄鎔** 鎔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남편은 법학과 61학번이고 저는 63학번이예요. 재학시절 남편이 ‘항토개척단’ 단장을 맡았었어요. 남편이 임기를 마칠 무렵, 제가 입원하고 갔을 때 만났죠.

당시 문리대·법대 학생들과 많이 어울려 분단·민족 통제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길 좋아했어요. 남편이 그 모임에서

였지요. 그런데 연번에서는 성에 관한 내용만 집중해서 보도하더라고요. 출판사 나름대로의 관례적인 듯해 상관하지 않았어요.”

— 남편께서 너무 진지해 곤란한 점은 없으셨는지.

“우리는 농담을 안 해요. 저는 아직도 웃으면서 참대없는 얘기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진지하게 토론하는 분위기가 좋아하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발전적인 토론을 하는 것을 보면 흥분이 되곤 합니다.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위들과 동양학이나 전자통신 분야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재미있어요.”

— 떠남만 넷이죠. 아들

모교...국민의 대학으로서 위상 찾기 온가족이 키운 네 딸 잘 자라 다행

독재 정

권 아래서

는 사법고

시를 안 치르

겠다고 하더라

고요. 그 말이

너무나 신선해서

지 사람하고 결혼하

면 말이 배우자였다

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농민운동을 하

면서 친구들이 모여 들어

가는 모습을 보면 많이 힘들어 했어요.

저는 사법고시를 안 치르거면 기자가 되어

비판하면 되지 않겠냐고 느꼈는데 남편은

농업을 농민의 것으로 만들자며 농협에

들어갔어요. **金大** 中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함께 일하면서 **金大** 中과 인연을 맺게 됐

어요. **金大** 中이 당선되면서 남편은 화

를 같이 한 사람이 복을 같이 누리는 게

아니라면서 고향 가서 군수하고 싶다고 고

향으로 내려가 곡성군수를 하게 됐고, 저

는 **金大** 中의 권유로 정치계로 가게 됐죠.”

— 두 분이 함께 ‘행복한 부부 만들기’라는

책을 써서 출간하셨습니까.

3분과

13분 얘기는 특히 많이 일러졌고요.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도

서로 존댓말을 쓰고요. 2000년 무렵 교양

과에서 건강관리를 가르치면서 학생들

의 건강할 몸과 마음 유지에 필요한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개인과 가정, 사회 건강

에 관한 내용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행복

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할 것

같아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작은 지혜’

라는 책을 썼지요.

장관이 되고 보니 가정이 쉽게 해체되고

1만명 이상의 아이들이 버려지는 현실이

가 아파고 아픈 마음이었습니다. 생각으로

‘행복한 부부 만들기’라는 책을 쓰게 된



을 낳으려던 것은 아니었다

지요.

“술집이 그런 집이지. 시아버님께서 저를 예뻐하셔서 저에게서 대를 잇게끔 바라셨죠. 그래서 계속 낳다 보니 딸 셋이 됐지요. 다행히 아랫동생이 아들을 낳아 대는 잇게 됐습니다. 후에 시어머니가 한번 만 더 낳아 보라고 하셔서 막대를 얻게 됐죠.”

— 일하느라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키우셨는지.

“남편이 종가의 7남매 중 장남이예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 살았어요. 시할머니, 시어머니 등 사며 어른들과 같이 살아서 그분들이 키워주셨어요. 사실 키우는 방법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시할머니는 땅에 떨어진 사탕을 닦아 먹이기도 했고 삼촌과 고모들은 아이를 바닷물 고친다고 제가 보는데 앞에서 때리기도 했어요. 그 래도 그 속에 진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잘 자랄 것이라고 믿었어요.”

— 자녀들은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결혼은 했는지요.

“첫째 은강이는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성공관대과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석사를 마쳤어요. 현재 홍콩대와 옥스퍼드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공부하기 바빠 결혼은 했지만 아직 아이는 없어요. 둘째 선강이는 이화여대를 나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지금 삼성여대 교수로 재직중이지요. 결혼해서

아이도 없고요. 셋째 진강이는 서울대 간호대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에서 박사 과정 중입니다. 그네 현강이는 이화여대 의대 분과 3학년이예요. 서울대 사회교육과에 들어가려 했는데 떨어졌어요. 교사가 꿈이었는데 뜻대로 안됐죠.

아이들한테 그다지 신경을 못 썼는데 다 행히 반듯하게 자라고 공부도 잘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 올해로 모교가 개교 60주년을 맞았는데 모교 발전을 위해 한 말씀.

“그동안 서울대의 위상이나 자부심만 믿고 국민들 속에서 서울대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등한시해온 것 같어요. 서울대는 국민의 대학입니다. 국민의 대학으로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학으로서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을 위한 대학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흐르다보니 결국 서울대를 없애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아녜요. 생각됩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국민들의 대학이라는 위상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폐교론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서울대를 없애면 결국 다른 대학이 일들을 차지할 뿐 대학 서울은 없어지지 않는다. 가난한 학생도 갈 수 있는 대학은 서울대뿐이다. 그 많은 집 자식들이 가는 대학이 살아남는 게 진정한 진보인가’라고 물었어요. 서울대를 없애자면 거의 거의 소위 진보 진영이었겠네요.”

— 동창회에서 장학발달을 하신데.

“처음엔 장학회관이 있는데 왜 새로 지어야 하는가 생각했죠. 현재 건물도 너무 낡고 수익성도 낮으니 새 건물을 필요할 것 같았어요. 장학발달금 적립하면 총동창회가 역점을 두고 있는 장학사업과 교수 지원에도 힘이 될 것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모교 활동이 활발하게 되고 있다는 것은 기본 소식인데 **林光洙** 회장이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장학발달이 지어질 곳의 지리적 위치도 좋으니 앞으로 큰 발전을 기대해봅니다.”

— 여성 동문들이 좀 더 활발하게 동창회 활동을 펼치려나.

“여성 여성동문회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많은 동문들이 여성동문회에 참여하게 되면 그 만큼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서울대 여성동문의 경우 사회에 나가면 자신의 능력으로만 발전할 수 있지 동문들의 도움을 받기는 힘든 것 같아요. 앞으로 누가 서울대를 나왔는지도 모르는 일 없이 서로 힘을 보태면 좋겠습니. 그해야 우리 여성들도 모교를 응원했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金희장은 모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박사, 서울대학교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모교 병원 수간호사, 대한간호협회 중앙회 회장, 대한간호정신학회, 한국산업간호협회 총대 회장, 한국학교보건학회, 의료보살핌위원회,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위원장, 제16대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대통령 보건복지 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모교 보건대학원 교수로 맡고 있다.

(정리= **李宰亨** 기자)

화제의 동문

수원예총 金勳東회장

국내 잡지 창간호 8천여 점 소장

잡지 창간호 8천여 점을 소장한 동문이 있어 화제다. 수원예총 金勳東(농학63-69) 회장이 바로 그 주인공. 金회장은 "잡지사의 모든 역량이 집중돼 있는 게 창간호이고 그 속에는 한 사회의 삶과 정신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며 창간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우리 나라 최초의 청소년 잡지인 '少年' 창간호부터 최근 디지털 관련 잡지까지 국내에서는 개인, 단체를 포함해 金동문이 가장 많은 창간호를 갖고 있다.

농학을 전공한 金동문이 잡지 창간호 수집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 金동문은 "대학 때 과제를 하기 위해 자료를 찾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당시 필요한 논문을 찾기 위해 '새 농민'이란 잡지 창간호를 구해야 했는데 잡지사는 물론 학교 도서관에도 없더라고요. 국립도서관까지 찾아갔는데



그 때 담당자 말이 '잡지 따위는 수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립도서관에서 창간호만큼은 보관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더니 팔려버린 표정만 짓더라고요. 오기가 생겼죠. '국립도서관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해야겠다' 그리고 그 잡지를 강원도 영월까지 가서 구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면서 창간호 수집은 지속도가 붙었다. 전국의 고서방, 고물상은 다 찾아다녔다. 지방 출장을 가면 가장 먼저 종교책방에 들렀다. 당시 종교책방 주인들은 돈도 안 되는 잡지 창간호를 예뻐 찾는 그가 이해되지 않았다. 그 무거운 잡지 꾸러미를 팔고 묶는 모습이 예뻐서 워 그냥 주는 이도 있었다. 부인과 아들들의 불만도 있다. 부인 눈에는 '쓸데없는 일'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였고

세 아들은 잡지에게 방을 빼앗겨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었다. 한번은 돈이 없어 결혼 예물시계를 종교책방에 팔고 책을 구입했다가 영영 찾지 못한 적도 있다.

이렇게 해서 모은 창간호가 지금은 金동문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金동문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잡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방문이 잦아졌고 창간호를 잃어버린 잡지사들이 기념호를 제

작할 때면 늘 金동문을 찾는다. 잡지를 창간하려는 이들이 찾아와 제호를 의논하기도 한다.

金동문은 요즘 잡지 창간사를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창간사에는 그 시대 편집진들의 문제의식이 함축돼 있습니다. 독립선언문 같은 문서이 많습니니다. 이 작업은 잡지사를 정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金동문은 농협대학 교수, 농민신문 편집국장을 역임했으며 지금은 경인일보에 '김훈동 칼럼'을 연재하며 집필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대학시절 '시 문학'으로 등단한 시인이기도하다. 잡지 창간호 외에도 문인과 저급통, 담 모형 등을 수집하는 별난 동문이다.

(南)

Noblesse Oblige

알앤엘바이오 羅廷燦사장

최근 생명공학계에 활거웠던 한파가 지나고 따뜻한 훈풍이 불고 있다. 모교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성장한 생명공학 기업인 '알앤엘(RNI)바이오'의 羅廷燦(수의학 82-86)대표가 성체줄기세포 치료제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386세대인데 당시 서울대를 다니던 386세대들에게는 '지식기사'가 아닌 '지성인'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그만큼 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었던 거죠. 모교를 다니면서 생긴 이런 저의 사회적 책임 때문에 국가에 기여하는 일을 많이 하겠다고 결심하게 됐죠."

羅동문은 이 뜻을 펼치기 위해 '예담장학회'를 설립해 해외로 유학 가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현재 장학금 목표액 1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羅동문의 사재 2억원을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월에는 그 첫 수혜자를 배출했고 점점 그 숫자를 늘려갈 계획이다.



놀이 모교에 입학해 다니면서 많이 성장했죠. 그래서 언제나 모교에 진 빚이 많다고 생각했다"며 자신의 사업을 성장시켜준 모교에 이 빚을 조금이나 갚는 심정으로 수의대에 실용원 개 사육시설을 마련해 주었고 지난 3월 28일 자신의 개인주식 10만주를 전달했다고.

사재 털어 유학생에 장학금 지원

특히 예담장학회는 미국 IVY리그 대학에 생명공학분야로 진출하는 대학원생들에게 1인당 장학금 2만 달러와 이과를 지원한 고교생 9명에게 1인당 매년 2백만원의 혜택을 주고 있다. 단, 이 장학금의 조건이 있다면 대학원생들은 졸업 후 10년 내로 지원금을 갚아 후배들에게 그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적인 강제성을 띠지 않는 신뢰의 약속이라는 것. 장학금 신청은 알앤엘바이오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돼 있는데 미국대학 입학허가서와 교수추천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하고 있다.

한편 모교 수의대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는 羅동문은 "고향이 청주인데 춘

羅동문이 설립한 알앤엘바이오는 2000년 11월 모교 수의대 교수들과 함께 만든 바이오 기업으로 지난해 가을 상장회사와의 주식교환을 통해 우회 상장을 하여 크게 성장하게 됐다. 현재 알앤엘바이오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실용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뇨환자를 위한 건강식품,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소독제, 동물용 소독제 등을 생산하고 있다.

올해 羅동문은 미국에 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이며, 세계 1백여 개 이상의 국가에 연구소 및 생산 시설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세계 일류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

(李)

동문기자 취재수첩

지자체 '장'들의 장밋빛 헛공약(?)

민선3기 광역단체장들의 임기가 이제 1백여 일 남게 됐다. 오는 6월 31일이면 임기가 모두 만료된다. 일부 단체장은 5·31 지방선거에 출마해 연임을 시도하고, 일부는 이번 임기를 끝으로 단체장 자리를 떠나게 된다.

그러나 정치인은 떠나도 공약은 남는다. 세계일보 정치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이들 광역단체장들이 2002년 5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내뱉었던 선거공약들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검증했다.

그동안 정치인들의 공약검증 기사는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일간지들의 단골 기획별이었다. 하지만 그 대부분 일회성 기획으로 끝나기 일쑤였고, 선거가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잊혀지고 말았다. 정치인들도 그 순간만 모면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대응하곤 했다.

관저를 집집마다 한 정치부 기획취재팀은 이런 언론과 정치인의 나태의 관심을 깨고, 추적검증이라는 새로운 취재방식을 도입했다. 일회성 검증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검증은 반복함으로써 정치인들이 임기 내에 국민과의 약속을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알기 쉽게 알려주는 취지에서다. 이를 통해 민심을 현혹하는 '장밋빛 헛공약'을 내뱉는 일부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

그래서 취재팀은 이미 2005년 6월에 16개 광역·시·도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1차 공약검증을 실시해 그 결과를 크게 보도한 바 있다. 정치인들이 내뱉은 공약은 중앙선관위와 한국정책학회 자료집, 후보자들이 뿌린 선거자료집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중 이행검증이 가능한 구체적 공약을 6백74개를 추려 검증한 것이다.

올해는 그 2탄으로 다시 한번 해당 공약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취재했다. 특히 이번 취재검증은 단체장들의 임기 막판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사실상 민선3기 시장의 공약이행에 대한 최종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공약검증 과정은 1차 검증 때보다 순탄치 않았다. 기자마다 일주일 이상을 전화통을 붙들고 싶었다. 해당 공약단체의 담당 공무원이나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직접 묻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 건 한 건씩 공약 이행 여부를 검증했다.

기자들의 취재에 응한 공무원들은 조금이라도 이행률을 높여보고자 갖은 애를 썼다. 아예 체면 불구하고 읍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아예 공약 이행여부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는 등 시종일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기도 했다. "자세한 한번 조사한 것으로 끝나는데 줄 알았는데 올해 또 하니까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있었다.

결국 공약관리 담당자는 아예 자신을



金 炯 煥

(사제88-92)

세계일보 정치부 기자

은 공약 이행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으니 "당신이 직접 확인하라"고까지 했다. 서울 시 측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50개 공약 중 47개가 이행 완료했다고 강변했다. 전남은 담당 공약관리자가 기사 마감일까지 아예 출장으로 자리를 비워버렸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공약이라면 일반 유권자나 언론이 그 이행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메이네스트'(구체적 예산과 추진일정을 갖춘 공약) 선거공약 운동이 일반화된 유럽에서는 공약이행 못지 않게 공약이행 실태의 공개도 중요하게 취

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정치권에서는 이런 의식이 부족했다. 아무튼 기사 마감일인 3월 22일에 지자체 공무원들의 철벽 수비(?)를 뚫고 광역단체장 16명에 대한 공약검증을 마칠 수 있었다.

자네해 1차 조사에서는 단체장들의 공약 이행률이 평균 29%였다. 올해 조사에서는 그보다도 높아서, 48.8%를 기록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민선3기 단체장들은 공약의 절반도 지키지 못한 셈이다.

이행되지 못한 공약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밖의 거창한 공약이어서 예초부터 이뤄지기 힘든 것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향민을 건설하고 철도를 놓고, 철단 산업단지를 육성하는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거나 중앙 정부의 협조가 없이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항들이어서 공약에서 전 타당성을 면밀히 조사한 후 내놓아야 하는데도 일단 표를 모으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만이라도 쏟아내고 보자는 식으로 대응했던 것이다.

민선3기 단체장의 임기는 조만간 끝나지만 우리의 공약검증 약속 보다는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앞으로 민선4기 단체장을 뽑는 5·31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후보들은 후보시절부터 당선 후 임기를 마치는 순간까지 매년 공약검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동문기자 취재수첩

모든 스포츠에 똑같이 응원합시다

3월 13일 저녁 7시 20분. 예나하임 예인 جلس 스타디움의 밤하늘에 이슬샘 선수의 총알 같은 타구가 날아 오릅니다. 1백30미터를 날아가며 우중견을 정확히 반으로 가른 뒤, 예인이 방방한 미국 관중들 사이로 떨어지는 아름다운 궤적, 백스플 뒤 기차실에 앉아 있던, 아니 타구가 맞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모든 이들이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화가들이 카카소를 대하듯, 혹은 음악가들이 모차르트를 대하듯, 돈트렐 월리스는 너무나 동쪽에서 TV로만 숭배해왔던 젊은 존재였는데...

그 돈트렐 월리스가 마운드 위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냉정을 찾으려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몇 초 뒤에야 한국 기자들은 그 순간을 표현할 수 있는 단 하나 뿐인 단어를 뽑을 수 있었습니다.

"우와아아아아아아!!!!!!" 그랬더니 기자들이 자기와 있던 예나하임 예인 جلس 구단원들이 일제히 한바다 하더군요.

"기자실에서 응원하지 마세요. 플리즈."

그렇습니다. 메이저리그의 야구의 전 부인 줄 알고 있던 이들에게, 국가대항전의 이 파도는 드라마는 낯선 수밖에 없었지요. 안타 하나 하나에 리틀리그 선수들처럼 흥분하던 도나타가 선수들의 장엄이, 대타에서 처음으로 1루를 향해 몸을 던지다 시선을 끌어안지도 모르는 큰 부부를 당한 김동주 선수의 최영이, '아이스 콜'이

라는 별명이 무색하게 관중을 향해 목을 해대던 이치로리의 질박함이, 야구의 본고장이자 미국의 야구 권력자였던 그저 낯선 풍경을 뽐내었던 겁니다.

미국에서 형의 최고의 야구 기자로 꼽히는 ESPN의 피터 개먼스를 인터뷰하기 위해 갔었습시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답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미국인들이 다른 나라 야구의 높은 기량과 존경심을 깨닫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인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야 한국이, 쿠바가, 이렇게 야구를 잘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비록 정치는 아니지만, '상호 존중'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다른 나라를 존중하지 않는 걸로 유명한 미국으로서, 이번 대회가 야구를 통해 '상호 존중'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회 취재중도 이 '상호 존중'을 배운 걸까요. 미국 기자들을 제외한 다른 나라 기자들의 '경기 중 응원'은 대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됐고-생각해 보십시오. 야구팬 선수의 적시타가 터지는 순간 어떤 한국 기자가 환호성을 칠 수 있었으며, 어떤 일선 기자가 욕투자를 억제할 수 있었겠습니까-결국 대회 취재들은 '기자실 응원 금지 방침'을 포기하게 됩니다. (물론 대회 운영의 많은 부분은-대진표, 심판 운영 등-은 '상호 존중'과 거리가 멀었지만요)



李 星 勳

(독문93-01)

SBS 스포츠본부 기자

그런데 얼마 안 가, 국가대항전의 몰입, 정확히 말해 '국가대항전에만 몰입'이 옳은 건지에 대해 한 생각이 들더군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에서 16강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만큼 강함이 됐지만, K리그 경기장은 여전히 사람보다 파리가 더 많습니다. Team Korea에 열광하는 대중(축구팬이 아니라 대중이라 부르는 게 정확하다는 게 저게 생각합니다)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요즘이지만, 자신이 응원하는 K리그 팀의 승리에 환호했다는 축구팬을 찾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야구라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현대 유니콘스의 수원 홈구장은 미국 리틀리그 경기장보다 관중이 적습니다. 7월이 지나며 포스트시즌 진출이 확실해진 팀의 경기에서 자전거로 관중석을 누빌 수 있을 정도이지요.

'국내 프로스포츠가 살아야 한다'는 담원을 이어가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만) 내 팀을 응원하는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불행이 이어지는 것이지요.

요승환 선수가 아니라, 다우리를 연속 삼진 처리하는 순간 행복했습니까? 삼성 라이온즈의 팬이 되어보세요. 1년 내내 이드레날리에 절여 살 수 있습니다. 손민한 선수가 메이저리그의 슈퍼스타들을 당한 채 입찰 때 스스로 자랑스러워하셨습니까? 사자구장으로 가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정열적인 흥분의 도가니를 여섯 달 동안 만끽할 수 있는 곳에, 누군가를 응원해 보세요. Team Korea에만 몰입하는 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사는 겁니다.

교수 준수사항 답아 '윤리헌장' 공포

모교 소식

모교는 지난 3월 15일 교육·연구·사회참여·봉사·학교운영 등의 활동에서 교수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윤리헌장을 제정, 공포했다.

윤리위원회가 만든 이 윤리헌장은 전문과 유리강령 5개항, 윤리규범 5개조 26개항으로 구성돼 있다.

전문은 우리 나라의 중추적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모교가 지니는 사명과 함께 대학 구성원들이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교육공동체를 가꾸어 나가고 국민적 기대와 신뢰에 부응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



고 있다.

유리강령 부분은 전공분야 전문 지식뿐 아니라 인성과 교양을 아울러 갖추도록 학생들을 가르칠 의무, 전문 연구자로서의 의무, 공공의 이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의무, 학생의 인격과 권

리를 존중할 의무,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해 대학의 조직과 운영에 공정하게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적시했다.

윤리규범은 유리강령 5개항에 해당하는 세부 사항을 기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인에 첫 명예박사 수여

금호그룹 故 朴慶容회장



鄭慶容회장(右)이 故 朴慶容회장의 부인의 마가렛 클라크 차여사에게 명예박사학위증을 전달했다.

모교는 지난 3월 28일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지난해 별세한 금호이씨이나그룹 故 朴慶容(사회50갑) 명예회장에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명예박사

추대절차가 까다로운 모교가 고인이 된 기업인에게 학위를 수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교는 개교 이래 1백2명에게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으며, 한국인은李承晩 前대통령과

金熙範 추경경 등 6명이 전부다. 기업인으로는 2000년 학위를 받은 삼성그룹 李健熙 회장 이후 10년이 두 번째다. 李健熙 대덕원장은 추천사에서

"故 朴慶容회장은 학자이자 기업인으로서 우리 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공헌했으며 문화예술 발전과 대학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등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에 크게 기여한 고인의 공로를 기린다"고 전했다.

재계 1세대 원로 경영인으로 꼽히는 朴 前 명예회장은 그룹 총수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금호문화재단 이사장, 예술의 전당 이사장, 한국매세나협회의 회장 등을 맡아 자원을 아끼지 않은 문화예술계 최고 후원자로 생전에 '한국계의 매디치'로 불렸다. '풍경 음악상 음악회'를 세계적인 음악제로 키운 주인공이기도 하다.

아난 수여식에는 전정련 鄭信淮 회장, 본회 孫一棟 상임부회장, 이관산 鄭永壽 회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선배님,하세요?

다양한 상징물 ①

4·19 학생혁명기념탑

문리과대학이 4·19 정신을 길이 간직하고자 1961년 4월 19일 건립한 4·19 학생혁명기념탑은 모교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함에 따라 모교와 대학별로 세워졌던 4·19 기념비와 함께 4·19 공원에 옮겨졌다. 4·19 공원은 초기에는 관대 폭포 옆에 조성됐다가 현재 정본 부근 두레문예관 앞으로 옮겨져 왔다.

기념탑에는 "상아탑은 전리의 탐구자요 정의의 수호자다. 비분 속에 폭립된 4월의 불기는 엄숙한



대역의 국명요이 정기의 절규이었나"라는 故 金治鎔 학생의 추모비문이 새겨져 있다.



2006학년도 입학식

3천4백65명 동복

모교는 지난 3월 2일 오전 11시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본회 孫一棟 상임부회장, 모교 鄭慶容 회장, 李健熙 부총장을 비롯한 1백여 명의 교내와 인사를 포함한 신입생, 학부모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학년도 입학식을 거행했다.

鄭慶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입학생들은 식사를 통해 '입학생

여러분은 잠재력은 무한하지만 아직 이룬 것이 적고 제한돼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세를 갖추길 바란다"며 "매우고 탐구하는 것을 존중하면서 진실된 대

도로 꾸준하게 자신의 학문에 정진하는 '대학인'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음대 성악과 金熙範 교수가 축하곡으로 유치열 '웨스트라이프 스토리' 중 'I feel pretty tonight'을 불러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했다.

2006학년도 신입생 최종 등록결과, 수시전형 1천1백17명, 정시전형 2천1백46명, 농어촌특기자 등 정원외 모집 2백2명으로 총 3천4백65명이 입학했다. 단과대별로 보면, 미대, 경영대, 음대 등이 1백%의 높은 등록률을 보인 반면 약대는 86.3%의 저조한 등록률을 보였다.

鄭慶容은 식사를 통해 "입학생

00), 조이태 권두, 김현수(대학원06층) 연구원 등 4명은 지난 3월 6일 夫愛심원DC에서 열린 제97차 美안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스칼라 인 트레이닝 어워드(Scholar-in-Training Award)'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상은 우수논문을 제출한 연구원급 이하의 과학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2천달러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鄭慶容 연구실은 2000년 千京秀(대학원99-99)박사가 이 상을 처음 수상한 후 7년 연속 수상자를 배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4년제 언어이 수상자로 선정된 나혜경 박사는 마늘의 유황화합물이 유방암 세포를 사멸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논문을 제출했다.

공대 玄澤煥교수 세계 최대 논문 인용돼

공과대학 화학공학부 玄澤煥(화학83-87)교수의 나노분야 논문이 최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돼 '뉴 핫 페이퍼'로 공식 선정됐다.

모교는 지난 3월 12일 玄교수가 2004년 말 '네이처 머티리얼스(Nature Materials)'에 발표한 '균일한 나노입자의 대량생산 공정 개발' 논문이 과학논문 인용지수(SCI)를 관리하는 톨슨사에 의해 뉴 핫 페이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톨슨사는 최근 2년간 발행된 논문들 중에서 각 분야에서 인용회수가 상위 0.1%에 드는 논문을 뉴 핫 페이퍼로 선정하고 있다.

(후)



간호대학

나이팅게일 선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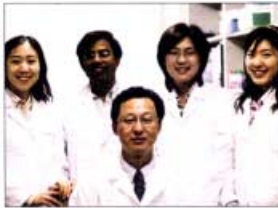
간호대학(학장 朴慶容)은 지난 3월 7일 모교 연전캠퍼스 간호대학 강당에서 모교 鄭慶容 회장, 成相哲 병원장, 간호대동정회 俞淑子 회장 등 교내와 인사와 재학생 및 학부모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6회 나이팅게일선서식을 가졌다.

아란 간호대 3학년 재학생 일동은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선서를 했다. 차학장은 식사를 통해 "훌륭한 간호사는 인격적으로 성숙함을 갖춘 이들로서 남을 돕는다는 생각보다 자신의 직업을 예술적 극치로 승화시

킬 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鄭慶容장은 "간호사단 직입의 이 미 단행전 들에 참여하지 말고 비잔을 갖고 준비하는 학생이 되길 바란다"며 "한대 의료현장에서는 인간적인 손길이 더욱 요구되기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간호사가 돼달라"고 전했다.

간호대학은 매년 3학년 재학생들이 실습현장에 나가기 앞서 전문간호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나이팅게일선서식을 개최하고 있다.



徐榮俊교수 연구실

7년째 '과학자상' 배출

약학대학 약학과 徐榮俊(제약77-81)교수(사학 中) 연구실이 7년째 美안학회 연례학술대회의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있다.

과학기술부 국가지정연구실로 지정된 '발암기전 및 분자 암예판 연구실'의 나혜경 책임 연구원과 대학원생인 김은희(농생물96-

정년교수 프로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모교에서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을 위해 한 평생을 바친 교수 27명의 정년식과 불어불문학과 李仁星교수, 소비자동화부 柳常準교수, 의학과 차츰교수의 명예퇴직 기념식이 지난 2월 28일 열렸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헌신의 삶과 그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 분들의 약력을 간략히 소개한다.



황승호교수·고고미술사

61년 모교 고고인류학과에 입학, 67년 졸업. 美버바드대에서 문학석사·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83년 모교에 부임, 모교 박물관장, 한국미술사교육연구회장, 한국미술학회 회장, 문화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을 맡은 바 있다.



유구성교수·독어독문학

59년 모교 독어독문학과에 입학, 63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82년 모교 독어독문학과 조교수로 부임, 독어독문학과 교수, 한국독어독문학회 출판·편집이사 등을 맡았으며 저서로 모택·독·한사전 등이 있다.



김현연교수·미학

59년 모교 미학과에 입학, 63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美일리노이대 대학원에서 철학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70년 모교에 부임, 한국미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상훈으로는 열람기념사업회에서 수여하는 제22회 열람학술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한승호교수·언어학

59년 모교 언어학과에 입학, 63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마친 후 美텍사스대 대학원에서 언어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홍익대 교수, 문과대학장 등을 역임하고 모교에 부임, 언어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남승호교수·경제학

60년 모교 경제학과에 입학, 64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 애크레이프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68년 모교 경제학과 전임강사로 부임, 모교 경제연구소장, 사회과학대 경제학과장, 한국경제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남승호교수·경제학

58년 모교 경제학과에 입학, 64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70년 모교에 부임, 아시아경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농협중앙회 기획실장, 모교 경제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상훈으로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했다.



배명호교수·정치학

58년 모교 법학과에 입학, 62년 졸업. 美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美Monmouth College 전임강사를 역임한 후 72년 모교에 부임, 모교 교무처장, 사회과학연구소장, 정치학과장 등을 역임했다.



김인수교수·지리학

59년 모교 지리학에 입학, 63년 졸업. 美노스캐틀랜드대 대학원에서 지리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73년 모교에 부임, 모교 사회대 지리학과장, 기획위원, 국토문제연구소장, 국토 및 도시계획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김승호교수·물리학

59년 모교 원자력공학과에 입학, 63년 졸업. 캐나다 사스캐탄대 대학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79년 모교에 부임, 실험핵 물리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한국물리학회 원자력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승호교수·화학

59년 모교 화학과에 입학, 65년 졸업. 美조지아대 대학원에서 생화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79년 모교에 부임, 한국생화학회장, 교육부 대학발전심사위원, 기초과학교육연구공동기기원장 등을 역임했다.



남승호교수·원자핵공학

59년 모교 원자력공학과에 입학, 65년 졸업. 美MIT 대학원에서 원자력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美MIT 조교, 연구원 등을 역임하고 71년 모교에 부임, 모교 교무처장, 원자력공학과장, 과학기술처 연구원 등을 맡았다.



김승호교수·조선해양공학

59년 모교 조선해양공학과에 입학, 64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68년 모교에 부임, 대한조선학회 회장, 중소기업청 산업표준심의위원, 모교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장, 조선해양공학과장 등을 역임했다.



趙善恒 교수 조선항공학

59년 모교 조선항공공학과에 입학, 65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 미 버클리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82년 모교에 부임. 한국해양환경공학회, 한국이론 및 응용역학회 등을 역임했다.



南生圭 교수 농생명공학

60년 모교 농생물학과에 입학, 64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 미미네소타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미네소타대 연구원, 캐나다 토론토대 연구원 등을 역임하고 82년 모교에 부임. 한국응용곤충학회, 아태곤충학회 등을 역임했다.



金永善 교수 식물생리학

60년 모교 농학과에 입학, 64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 미워싱턴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79년 모교에 부임.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 생리유전과 겸임연구관, 한국육종학회 등을 맡은 바 있다.



金承圭 교수 디자인학

59년 모교 응용미술학과에 입학, 65년 졸업. 68년 모교에 부임, 한국시각디자인협회, 서울현대디자인협회 이사, 체신부 정책자문위원,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디자인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대표 작품으로는 서울올림픽 회장과 공식염색 등 있다.



金承圭 교수 법학

60년 모교 행정학과에 입학, 64년 졸업. 미남캘리포니아 대학원에서 행정법석사, 日九州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69년 모교에 부임, 日동경대 교환교수, 한국노동법학회, 국제노동법연구회, 모교 법대 학장 등을 역임했다.



金承圭 교수 교육학

59년 모교 교육심리학과에 입학, 63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문학석사, 미퍼츠버그대에서 교육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에 부임, 한국병행교육학회, 한국교육학회장, 모교 사범대 교무담당장관, 교육과학자, 교육행정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金承圭 교수 독어교육

61년 모교 독어교육학과에 입학, 65년 졸업. 모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독일 베를린자유대에서 독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단국대 부교수, 중앙대 교수를 역임하고 84년 모교에 부임,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모교 외국어연구소장, 사범대학 등을 역임했다.



金承圭 교수 지리교육

59년 모교 지리교육학과에 입학, 63년 졸업. 모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미미네소타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에 부임, 모교 지리교육과장, 한국도시지리학회, 대한지리학회, 동해연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金承圭 교수 체육교육

60년 모교 체육교육학과에 입학, 64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체육학석사, 미조지타운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에 부임, 한국체육학회, 국제스포츠사회학회(ICSS) 이사 등을 역임했다.



金承圭 교수 수의학

65년 서울시립대 수의학과를 졸업한 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 日야자부수의과대 대학원에서 수의외과박사 학위를 받았다. 88년 모교에 부임, 한국임상수의학회, 모교 수의대 부속 동물병원장 등을 역임했다.



金承圭 교수 의학

59년 모교 의과에 입학, 65년 의학과 졸업. 日도호대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미네소타대 소아정신과 조교수를 역임하고 79년 모교에 부임, 국무총리실 청소년 자문위원, 한국지배학회 초대 회장, 제주대학교병원 초대 병원장 등을 역임했다.



金承圭 교수 환경보건학

60년 모교 약학과에 입학, 64년 졸업. 모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석사, 가톨릭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85년 모교에 부임, 모교 보건대학원장, 보건사업소장 등을 역임했다.



金承圭 교수 환경보건학

63년 공주사대 화학과 졸업 후 모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77년 모교 보건대학원에 부임, 보건사업소장, 모교 국민보건연구소 연구원, 보건대학원장, 환경학회 등을 역임했다.



金承圭 교수 환경계획학

61년 경북대 사범대 일반사회학과 졸업 후 모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석사, 미퍼츠버그대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71년 모교에 부임, 모교 환경대학원장, 영세필드대 초빙교수, 경기21세기발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金承圭 교수 지역학

58년 모교 사물학과에 입학, 62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식물학석사, 미앨리스노이데 대학원에서 마생물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앨리스노이데 의학스쿨 조교, 연구원 등을 역임하고 80년 모교에 부임, 대한구강생물학회 등을 역임했다.



金承圭 교수 불어불문학

73년 모교 불어불문학에 입학, 77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불어불문학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외국어대 조교수를 역임하고 89년 모교에 부임, 한국프랑스고전문학회 총무를 역임하고 현재 계간 '문화·관' 편집인을 맡고 있다.



金承圭 교수 소비자운동

61년 모교 교육학과에 입학, 65년 졸업. 모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심리학석사, 미플로리다주립대에서 교육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81년 모교에 부임, 대한가정학회 이사, 한국시인협회 기획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金承圭 교수 의학

60년 모교 의과에 입학, 68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76년 모교에 부임, 미버드데 전임의, 모교 의학도서관장, 모교 병원 원장,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두산그룹 연건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동 정

수 상

▲**李相滿**(수의학48-56 인천시 용진군 공수의)= 지난 2월 19일 인천수의사회 정기총회에서 가족 방역, 질병 예방에 기여한 공로



로 공로에 수상.

▲**朴孟浩**(불문52-57 도사출판 민음사 회장·대한 출판문화회 회장)= 지난 3월 9일 '2005년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행사'에 기여한 공로로 보관 문화훈장 수훈.



▲**鮮于仲曉**(토목공학59-63 前모교 총장·前명지대 총장·모교 명예교수)= 지난 2월 27일 우리 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조 근정훈장 수훈.



▲**成善虎**(상학59-64 前성결대 총장·명예총장)= 지난 2월 27일 우리 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조 근정훈장 수훈.



▲**朴孝謙**(천문기상61-65 모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지난 3월 23일 서울 기상청 대강당에서 열린 기상의 날 기념식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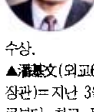


홍조 근정훈장 수훈.

▲**徐龍錫**(심유공학61-66 동양방직 회장)= 지난 3월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3회 상공의 날 행사에서 금탑 산업훈장 수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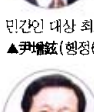
▲**朴勝德**(대학원62-64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지난 3월 9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제10회 한국공학한림원 대상



수상.
▲**潘基文**(외교63-70 외교통상부 장관)= 지난 3월 17일 페루 정부로부터 최고 등급의 수교훈장인 '페루 태양 대상자 훈장' 수훈.



▲**李龍澤**(금융공학64-69 포스코 회장)= 최근 무역과 투자를 통해 한국과 후주의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후주정부로부터



민간인 대상 최고훈장 수훈.
▲**尹維鉉**(행정65-69 금융감독원 원장 겸 금융감독원장)= 지난 3월 15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금융전문 월간지인 '더 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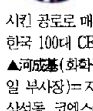
인 뱅커'가 수여하는 '금융감독부문 2005 더 아시아인 뱅커 상패상' 수상.

▲**玄在賢**(법학67-71 동양사·멘트 회장·분회 부회장)= 지난 3월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3회 상공의 날 행사에서 금탑 산업훈장 수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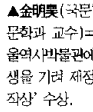


▲**李承奎**(의학67-73 울산대 교수)= 지난 3월 10일 한림대 설립자인 故 一松 尹維齊(자)를 기려 제정된 제1회 임송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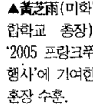
▲**金鍾勳**(건축69-73 한미파슨스 대표)= 최근 국내외 4백50여 CM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 최고의 CM 전문회사로 성장



시킨 공로로 매경이코노미 2006년 한국 100대 CEO에 선정.
▲**河成基**(화학공학71-75 예쓰오 일 부사장)= 지난 3월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3회 상공의 날 행사에서 금탑 산업훈장 수훈.



▲**金明昊**(국문72-76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 지난 4월 11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月曜 韓語전생을 가려 제정된 제31회 '월봉저작상' 수상.



▲**黃芝雨**(미학72-79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지난 3월 9일 '2005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행사'에 기여한 공로로 목관 문화훈장 수훈.



▲**李家植**(토목공학73-78 한양대 산업경영대학원장)= 최근 토목공학의 학술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토목학회로부터 학술상



수상.
▲**洪鍾禧**(요업공학76-80 모교 재교공학부 교수)= 지난 3월 9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한국공학한림원이 수여하는 젊은 공학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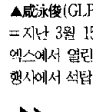
수상.
▲**朴喜載**(기계설계79-83 모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지난 3월 9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한국공학한림원이 수여하는 젊은 공



학인상 수상.
▲**趙載濤**(AMP 38기 대한송유관 공사 사장)= 지난 3월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3회 상공의 날 행사에서 동탑 산업훈장 수훈.



▲**羅鍾德**(AMP 48기 통일문화연구원 이사장)= 지난 4월 4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소극장에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수여하는



한국문화예술상 대상 수상.
▲**咸永俊**(GLP 1기 오뚜기 대표)= 지난 3월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3회 상공의 날 행사에서 석탑 산업훈장 수훈.



안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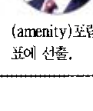
▲**崔滿植**(조소54-58 모교 조소과 명예교수)= 지난 3월 11일 경기도 파주 예술마를 테러리 커뮤티하우스이



사장에 선출.
▲**陳秉植**(법학57-61 CJ그룹 회장·분회 부회장)= 지난 3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임의



의원총회에서 임기 3년의 제19대 회장에 선출.
▲**徐維一**(미학58-64 前서울신문 편집국장)= 지난 2월 22일 한국언론재단 기자 회견장에서 열린 '지역정보 활성화



와 여메네리(amenity)포럼' 총회에서 상임대표에 선출.

▲**宋丙浩**(경제59-63 모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 지난 3월 10일 자유기업원 이사회에서 제2대 이사장에 선출.



▲**吳世榮**(국문65출 모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지난 3월 25일 한국서인협회 정기총회에서 제35대 회장에 선



임.
▲**元佑炫**(행정61-65 고려대 교수)= 지난 3월 17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정기총회에서 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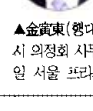
임기의 제16대 회장에 선임.
▲**鄭海壽**(법학63-68 前행정안전부 장관·한국항공우주산업 사



장)= 지난 3월 21일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에 임명.



▲**宋錫亨**(언어64-68 前SBS 보도본부장·이안글프로그로리아상 임고문)= 지난 3월 30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에 취임.



▲**金文煥**(법학65-69 前한국국제거래법학회·국민대 총장)= 지난 3월 7일 사립법인 한국대학총협회 제6대 회장에 선임.



▲**金寅東**(행정65-67 서울특별시 의정회 사무총장)= 지난 3월 9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서

물특랜시 의정회 제16차 정기총회에서 사부총장에 재선임.

▲林秉喆(국문기출 총책대 교수)=지난 3월 8일 총책대 제8대 총장에 취임.

▲權孝傑(응용미술69-76 모교 미술대 학장)=지난 2월 27일 국회 의원화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공공디자인학회 총회에서 회장에 취임. 또 국회 공공디자인포럼 공동대표에 선임.

▲權五奎(행정69-73 모교 법학부 교수)=지난 3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임명.

▲李炳烈(법학69-77 법부법임 한백 대표변호사)=지난 3월 21일 감사인 감사위원회에 임명.

▲趙孟浩(의학69-76 모교 정신과학교실 교수)=지난 3월 3일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정기총회에서 3년 임기의 이사장에 선출.

▲郭賢浩(신대원69-71 한국동일문화진흥회 연수원 이사장·대한연민회복지기금 관리위원장)=지난 3월 30일 고려대 교

우회 상임이사에 재선임.

▲梁辛根(불어교육70-74 前 신한은행 부행장)=지난 3월 20일 신한금융지주 자회사인 SH&C생명보험 부사장에 선임.

▲文聖院(경영71-75 삼양사 경영기획실 부사장)=지난 3월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경영협의회 회장에 선임.

▲鄭永錫(무역72-76 前노동부 차관)=지난 3월 13일 임기 4년의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에 선임.

▲吳永錫(화학공학72-80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지난 3월 21일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에 임명.

▲李鍾瑞(사회교육73-77 교원소정심사위원장)=지난 3월 21일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에 임명.

▲李致範(특어교육74-78 철학77-81 前한경운동연합 사무처장·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지난 3월 15일 환경부 장관에

내정.

▲韓珪洙(AMP 31기 한임스펜데스 회장·청한정학회 이사장)=지난 2월 28일 청주한씨 중앙종친회 정기총회에서 제22대 회장에

선출.

▲安政煥(AIP 11기·SGS 3기 삼풍엔지니어링 회장)=지난 2월 17일 서울 프래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문화재수리기술회의 정기총회에서 제10대 회장에

선출.

▲朴永淳(ACAD 43기 현대시멘트 상임감사)=지난 3월 17일 현대시멘트 상임고문에 선임.

▲趙東華(약학49 54 월간 총 발행인)=지난 3월 3일에 부용전문월간지 '총' 30주년을 기념로 발행. 또 3월 21일 서울 대학로

에 출 자료관 閣閣 개관.

▲李英熙(행정51-55 석촌 李英熙 선생기념사업회 장·문화 부회장)=지난 3월 13일 서울 효창공원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

석을 재배 석촌 李英熙 선생 66주기 기념추모제전 개최.

▲李吉女(의학51-57 경원대 총장·가천연합 이사장·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 이사장·문화 부회장)=지난 2월 15일 인천

로양호텔에서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 정기이사회 개최. 또 28일 가천의대와 가천경남대이 통합한 가천의과대학 제1회 인학식 개최.

▲尹銘重(정치53-57 한국언론인포럼 회장)=지난 3월 15일 서울 한국언론재단 대화홀에서 연세대 崔平吉 명예교수를 초청, '성

공한 대통령과 언론과의 관계'라는 주제로 강연회 개최.

▲金哲健(치의학57 61 모교 치의학과 명예교수·치대 15회 동기

회장)=지난 3월 9일 서울 동송동 설봉발당에서 '금강산 온정인민병원 치과진료소를 개소하고'

라는 주제로 목요강좌 개최.

▲鄭元錫(생물교육58-63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회장)=지난 3월 23~24일 전안상록리조트에서 전국 장학관, 장학사, 연

구사를 초청해 과학교육담당자제미나 개최.

▲玄輝善(고교인류61-67 모교 명예교수·문화재위원장)=지난 3월 28일 서울역삼동 (S&W)아모리스홀에서 장년기념 논문집

발행식 개최.

▲李錫哲(고교인류62-66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지난 3월 22일 40년 전통의 일본(奈良)대학교와 학생, 학승, 교육 교류

협정 체결.

▲金秉旋(조소63-67 민화 작가)=지난 4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일본 미에현 마키모토 진주도박물관에서 한국백자위의 조

신민화전 개최.

▲金錫澤(경대원68-70 양천학회 이사장)=지난 2월 27일 양천장학회 1학기 장학금 수여식에서 장학생 39명에게 6천3백20

만원 전달.

▲馮興容(회화69-73 청주대 교수)=지난 3월 10~15일 서울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열린 제6회 한국현대미술제에 출품.

▲李昇姬(응용미술75-79 독일연방미술가협회 회원)=지난 3월 7

~13일 서울 내수동 문화공간 청원에서 李昇姬(회화76-80)등문 등과 함께 '共同의 창'을 주제로 3인 국제교류전 개최.

▲李錫謙(기악87-91 수월대 강사·비올리스트)=지난 4월 13일 서울 신문로1가 금호아트홀에서 슈만, 레거, 윤이상, 슈베르트 등의 작품으로 독주회 개최.

▲文赫仙(기악75-79 중앙대 겸임교수·플루티스트)=지난 4월 8일 서울 영산아트홀에서 열린 '영감과 열정 챔버 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연주회에서 협연.

▲李太敦(AMP 4기 서울부동산포럼 회장)=최근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 등을 둘러싼 '토지정책론'(법문사) 출간.

▲韓祐三(AMP 34기 태양금속공업 회장)=지난 3월 2일 천립 52주년 기념식에서 정기 근무자와 최우수 부서 및 모범 사원

표창.

학 속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힘 등)

■강성현(컴퓨터96-00)·이성민 씨=4월 29일 12시.

■이 현(철학93-97)·채지혜 씨=4월 29일 14시.

■김태우(항공우주93-97)·황예정 씨=4월 29일 17시.

'동창'님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이메일 : snua@korea.com 또는 abseop@snu.ac.kr

• 전 화 : (02)702-2233

• 팩 스 : (02)702-0755

서울대 가족 李敎雄 一石학술재단 이사장

“50년간 한 집에서 4대가 함께 생활”

부친·큰딸·두 아들·손자 등 9명이 동문

젊은이들의 거리이자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는 서울의 대학로. 길을 걷다 동숭아트센터 쪽으로 올라가 오른쪽으로 골목길을 두어 개쯤 지나면 저은 지 얼마 안되는 건물이 보인다. 이곳은 국어학자이며 ‘말 깎발이’ 등 주요갈은 수필을 남긴 문인이자 교육학자인 故 李熙鼎(경성제대30졸 前모교 명예교수)동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一石기념관이다.

一石학술재단 이사장인 李敎雄(의학48-52 前이교응산부인과위원장)동문은 “부친께서 돌아가시기 전,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어학자들이 연구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학술상을 제정하라고 하시면서 그동안 모은 재산을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를 실현하기가 쉽지 않아 외부기관에 기탁하지는 의견도 있었지만, 가족인 우리가 직접 사업을 꾸려나가기 위해 50년간 산악인 동숭동에 건물을 짓고 학술재단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부친의 생일인 6월 9일 ‘一石學術賞’을 시상하기로 하고, 올해로 벌써 4회째를 맞게 됐습니다.”

학술재단의 공동대표는 모두 李敎雄동문의 자녀들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해 장녀 李玉靜(심리69-73 성신여대 심리학과 교수)동문과 차녀 李東蘭(입석학술재단 사무국장)씨, 장남 李東鎭(의학73-79 경희의료원 진단방사선과장)동문과 차남 李京鎭(수학75-79·경계81졸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동문이 ‘돌돌’ 붙은 것이다. 앞으로 재단을 활성화시키고 더 많은 학자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이 이들 네 명의 가장 큰 바람이기도 하다.

한편 李敎雄동문 가족 가운데 큰아들 閔庚煥(심리69-73 모교 심리학과 교수)동문과 작은아들 崔炳寅(의학68-74 모교 방사선과



앞줄 좌로부터 두 번째 李漢明·李敎雄동문, 두 명 건너 閔結泓동문, 뒷줄 좌로부터 閔庚煥·李玉靜·李京鎭동문, 한 명 건너 李東鎭동문, 세 명 건너 崔炳寅동문

학교실 교수)동문, 큰딸 부부의 대를 이어 심리학과 전공하고 있는 외손자 閔結泓(01학번)군과 장남 李京鎭동문의 아들인 손자 李漢明(생명과학05입)군이 모교 출신이다. 또 올해 1월 31일 별세한 부인 故 吳彩姬여사의 가족 중에는 차남 吳台煥(철학58-62 스웨덴 거주)동문과 사촌 차남 吳仁德(사회55-61 前한국홍보회회장)동문, 그리고 처제의 남편인 동서 卞光珠(언어58-65 한국외대 스페인어과 교수)동문이 모교를 졸업했다.

인터뷰를 위해 一石기념관을 방문했던 지난 3월 15일은 공교롭게도 부인 吳彩姬여사의 冥誕 제사를 지내는 날이었다. 조용했던 거실에는 어느새 자녀들과 손자들로 북적이기 시작했고, 어릴 적 시절로 돌아간 듯 저마다 재미있던 추억거리를 풀어놓았다.

먼저 李敎雄동문은 “저는 국군수도병원에서 방사선과 전공의로 10년, 제대 후 33년간 산부인과 의사로 환자들을 돌보느라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했는데, 대신 한 집에 4대가 모여 살았기 때문에 할아버지

와 손자간의 추억이 남다를 것”이라고 소개했다.

장녀 李玉靜동문은 미술과 서예에 취미가 있어 조부 李熙鼎동문의 첫 수필집 ‘병어리 냉가슴’의 표지 재목을 직접 그리기도 했으며, 한때 문학도의 꿈을 가졌던 큰아들 閔庚煥동문은 누구와도 대화가 잘 통하는 물(?)한 성격 때문에 조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다고.

작은아들 崔炳寅동문은 국내의 초음파학회장을 역임하며 그동안 분취의학상, 스포츠의학상, 각종 해외저술상 등을 수상했으며, 같은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장남 李東鎭동문은 성격도, 생김새도, 목소리까지 李敎雄동문을 꼭 빼닮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리 가장 많은 차남 李京鎭동문은 어릴 적부터 어려운 친구를 돕고 할아버지가 준 용돈을 며칠만에 다 써버려 李敎雄동문의 병원을 찾아가 가족들 몰래 용돈을 충당하기도 했다고.

조부 李熙鼎동문에 대한 추억을 얘기해달라는 질문에 장녀 李玉靜동문은 어떠한 일이

李敎雄동문의 서울대 가족

부친	故 李熙鼎(경성제대30졸)
장녀	李玉靜(심리69-73)
장남	李東鎭(의학73-79)
차남	李京鎭(수학75-79·경계81졸)
사위	閔庚煥(심리69-73)
	崔炳寅(의학68-74)
외손자	閔結泓(심리01입)
손자	李漢明(생명과학05입)

있어도 손자들의 졸업식은 빠짐없이 참석해 점심을 사주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의 남달랐던 후배사랑에 대해 “지각해서 수업을 듣지 못한 학생을 집으로 불러 그 자리에서 강의내용을 다시 설명할 정도로 제자들에게 소중해하시는 법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초콜릿의 뇌동림(?)’에 대한 일화가 나오자 4명의 자녀들은 한바탕 웃는다.

“법대로 집에 들어와 꼭 사각 초콜릿을 머리맡에 놓고 가셨는데, 그때 우리 성격이 다 드러났잖아. 아껴먹는 사람, 그 자리에서 다 먹는 사람...” “나는 누나 것까지 훔쳐먹었잖아.”

“맞아. 그래서 내가 막내랑 많이도 싸웠지. 그래도 막내는 친구들에게 참 잔재주더라. 2층 방은 언제나 막내 친구들 차지였지.” “누나 왜 그래, 그래도 내 밖에 지금 잔 재내고 있잖아.”

“지금도 초콜릿 냄새가 코끝에서 뿜도는 것 같아. 아버지도 손자들에게 꼭 ‘가나 초콜릿’을 주셨던 기억이 나. 할아버지는 근검 절약하면서도 손자들에게 정성을 다하셨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언제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셨어. 지금 아버지가 손자들에게 하시듯 말이야.”

그렇게 한참 동안 李敎雄동문 가족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조만간 가족이 모두 모여 멋진 가족 사진을 찍자고 약속했다. (表)

건강을 지키는 법

환절기엔 영양·수분 섭취가 최고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 이 시기엔 늘 찾아오는 환사는 아토피와 알레르기 질환이 많다. 이러한 우리 나라 환절기의 특징 중 하나가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하다는 것인데, 일교차가 심해지면 신체가 적절한 체온유지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에 쉽게 노출된다. 또한 여러 가지 나무와 먼지, 꽃가루와 같은 알레르겐에 의해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 각종 피부염 등이 생기기 쉽다.

감기는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인위적으로 온이 인체 내에 들어와도 병에 걸리지 않지만 환절기와 같이 인체의 저항력이 떨어지고 공기 중 습도의 변화가 심하며 꽃가루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해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면 발병의 기회가 높아지게 된다. 감기에 걸린 뒤 대개 1주일 정도 지나면 저절로 낫지만 경우에 따라 2차 세균성 합병증으로 중이염, 부비동염, 폐렴이나 기관지염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실내의 습도를 높이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휴식을 취하며 과로를 피하는 등의 일반적인 대증요법에 의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

또한 꽃가루 호흡기 감속이 침투할 경우 후두염, 천식, 기관지염의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환사가 심할 경우 의도적 외출을 삼가고 필요시 마스크를 이용하고 외출 후에는 손을 깨끗이 닦고 양치질을 하는 것이 예방에 중요하다.

또한 꽃가루나 황사 등에 의해 코의 파면 반응으로 발작적인 재채기나 콧물, 코막힘 등의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알레르기 비염은 환절기에 주의해야 할 질환이다. 건조한 공기는 알레르기 결

막염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한다. 눈이 가렵고 눈물이 많이 나며 빨갛게 충혈 되고 눈에 뭔가 들어간 것 같은 이물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눈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눈이 가렵다고 무턱대고 손으로 비벼서는 안되고 깨끗한 손수건이나 불로 씻어내도록 한다. 결막염 초기 증세가 의심되면 깨끗한 찬물에 눈을 씻거나 염증점질을 하면 증상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金東源
(의화90 96)
모교 병원 강남센터
소화기내과 교수

건강한 환절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평소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균형 있는 영양섭취를 삼취해 양호한 전신 건강상태를 유지하면서 질병으로부터의 저항력을 높여주는 것이 좋다. 특히 감기 및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나 양치질 등의 개인 위생관리가 중요하고 기관지 점막의 건조를 막기 위해 따뜻한 물과 음료를 통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기관지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등의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 환절기 전에 미리 예방약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연락처 : 2112-5500)

나의 건강법

하루 열 번 '파안대소' 원칙 늘 지켜

河權益(의화57-63)우리들병원 명예원장·의대동창회장

남이 나 대신 밥을 먹어 줄 수도 없고 배설을 해 줄 수도 없듯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내 스스로 철저한 원칙을 지키는 길 밖에 없다. 즉 하루의 건강 심진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다. 하루에 한번 좋은 일(또는 하루 한 번 배변)을 한다. 하루에 열 번 파안대소하고, 최소한 백 글자를 쓰며, 천 글자는 읽어야 하고 만보 이상을 걷는다는 것이 그 원칙이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칭찬하고 감사할 일이 있어 호숫물만 그 하루는 즐겁고 보람 있는 날이 된다. 남의 앞에 커 기울이고 남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사람이 아닐까? 이러한 일이 하루에 한번은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다. 또는 하루 한번 반드시 배변을 해야 한다. 하루에 두 번 이상의 배변이 많으면 이상 계속되거나 아수원만에 배변하는 것이 안주인 이상 지속되면 전문가의 진단을 요하는 상태이다.

필자에게 건강이 좋아 보이나는 특별한 비법이라고도 없고나고 물으면 나는 서슴없이 "저는 천분을 많이 먹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저는 할이 없어서요"라고 주석을 달아드린다. 그러면 금방 웃음이 터진다. 나는 참으로 유머를 좋아한다. 웃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웃을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인생을 통해 6년 화를 내고 사는데, 웃는 시간은 오로지 24일 뿐이라는 통계를 봐도 우리가 얼마나 웃는데 인생하기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천없이 잘 웃는다. 웃어도 크게 신나게 웃는 습관이 있다. 집에서 직장에서도 회의에서도 강의에서도 살짝 웃으면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진짜로 기분 좋게 크게 웃으면 엔도르핀의 삼전 배 해고 있는 다이올핀이 분비된다는 사실!

글자를 직접 쓴다는 것은 섬세한 손 운동을 함이며 두뇌에의 메모를 함이다. 그리고 계획성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대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건강법이다. 몸단련없이 천재의 머리보다 낫다는 말은 비로 예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주머니에는 연필이 든다 나 메모할 준비가 돼있고 오늘, 일주일,



한달 그리고 일년의 스케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포도 소지하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긴다.

아침 일찍 눈을 뜨는 습관도 건강 비법 중의 하나이다. 일찍 일어나 천 글자의 신문은 물론이고 책을 읽는다. 읽은 책들이 서재에 놓여가는 기쁨과 호호함 그리고 책에서 느끼고 배운 사실들이 금방 나에게 도움이 됨을 많이 느낀다. 긍정적인 삶을 배우는 것이다.

늘 허리에 만보기를 달고 다닌다. 하루 최소한 만보를 걷기 위한다. 언제부터인가 집 사람과 함께 만보를 걷기로 하고 실천중이다. 그동안 아내와의 시간을 너무 갖지 못했음에 반성하면서, 만일 귀가 후 만보에 미치지 못했다면 TV를 시청하면서 마루에서라도 반드시 만보를 달성시키고야 만다. 직장에서도 가능한데, 승강기도 피하고 골프에서도 카트 보다는 걷기를 택한다. 걸으면 성안병 즉 생활 습관 병을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 만보를 걸으면 심진법이 첫번인 하루 한 번의 배변은 자동으로 이뤄진다.

신나게 웃고 움직이며 건강 심진법 지키는 것이 나의 건강법이다.

추억의 창 李奎鎬 (약학60·65)해동약국 역사·약대동창회 부회장

나라 장래 걱정하며 '牛'모임 활동 적극적
대학원 개나리, 마음속 수채화로 남아

개나리가 휘 날아진 4월의 거리를 거닐면, 나는—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기 힘든— 46년 전 1960년 4월의 대학로를 떠올리며 이러한 회상에 젖곤 한다.

필자가 시골 고등학교를 졸업해 청운의 뜻을 품고 당시 의과대학과 함께 한문원 캠퍼스에 자리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 입학해(그 당시엔 입학이 4월이었다) 처음 만난 대학본부와 문리대학, 법과대학을 끼고 돌던 대학원 변(지금은 복개되어 그 모습을 볼 수 없다)에 관계도 도열한 개나리는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한 폭의 마음속의 수채화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개나리와 한문원과 문리대학 캠퍼스 안쪽에 난개한 미로나에 한기 속에서 시작한 대학생활은, 대학생활의 맛도 익히기 전에 당시 3·15 부정선



60년대 약학대학 전경 : 중앙 건물은 강의실, 오른쪽 아래 단층건물은 실험실, 왼쪽 건물들은 식당.

거로 흐트러진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모든 서울대생들과 함께 스트림을 싸고 국회(지금의 서울시 의회건물)로, 청와

대(당시 경무대)로 함성을 질러 李承晚 대통령을 하야시킨 것으로 알려진 4·19혁명. 그 다음 해 5월 16일 새벽 헌장을 건넨 무장 군인에 의해 발생한 군사 쿠데타 등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 보내야만 했다.



필자

우리 나라 전체가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 때 보낸 대학 시절 중에서 특히 잊혀지지 않는 것은 불특정 약학대학 교사에서

유화수소기스, 천미경과 씨름하면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선우배가 모여 '牛'모임이라는 서클을 만들어(이는 후에 공화당의 상징인 '소'와는 완전 별개임) 우리 나라의 미래는 농촌에 있음을 인식하고, 농촌 봉사활동에 전력한 일이다.

지금은 700개를 바라보는 金榮浩·金奎鎬·金奎善 등 여러 선배와 얼마 전 타계한 약업신문사 사장을 역임한 崔植吉 등들을 비롯한 후배들이 그 당시 경부선에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유일한 가차역인 경남 양산군 원동면 이천리(배내)를 이상향으로 삼고, 해마다 배낭을 메고 그 곳을 찾아 농촌 봉사활동을 한 일들은 가슴 뿌듯한 추억이 아닐 수 없다.

그 후 이 '소'모임은 계속 후배들에게 이어져 오다가, 농촌이 어느 정도 지원할 때 즈음에 중단됐으나 그 정신만은 지금까지 계승돼오고 있으며, 우리 나라 약업계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소'모임 동지들은, 졸업 후에도 매년 11월 8일 '소'모임 창립기념일에 모두 모여 그 옛날의 추억을 반추하곤 한다.

참 세상이 많이 변하고, 대학로도 많이 변했다.

신간

測量과 地籍

—李顯昊 지음



충북 재천의 지적(향토지)박물관장인 李顯昊 (임학 57종·도서출판 우를 대표) 등 문이 개간지

‘측량과 지적’을 창간했다.

이번 창간호에는 지적박물관 연혁, 지적학술대상 시상, 한국지적박람회 기획, 지적사료 지상전시 등을 소개한 회보를 비롯해 측사, 수질, ‘국보와 별책’에 관한 고찰’ 사평, 단군 때부터 근대지적 측사까지의 연표 등이 담겨 있다. (도서출판 우를·판·값 10,000원)

한글과 漢字

두 날개로 훨훨 나는

힘있는 映像국어

—朴千鎬 著



한국어 문회 朴千鎬(정 56·60) 상임이사가 10여 년에 걸쳐 신문, 잡지, 어문보도 등에 발표한 글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창문은 우리의 역사, 문화, 언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적절한 한자를 국어의 일부로 수용하는 어문정책과 한자교육을 필수로 하는 국어교육은 국가 발전에 중대한 과전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 뒷부분에 정인 故 南鍾祐 (국문 50종) 동문의 遺稿와 부인 南基慶 (국어교육 58·62) 동문의 글을 소개했다. (약리·판·값 20,000원)

다이나믹 매니지먼트와 기업일반이론

—金寅鎬 지음



이 책에 지난 1세기에 걸친 경영학의 발전과정에서 세계 최초로 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양대 경영학부 金寅鎬(상학 61·65) 교수의 ‘다이나믹 매니지먼트와 기업일반이론’이다.

金寅鎬는 그간 패전처럼 풍미해온 수많은 경영관련 유행어들의 명멸을 지켜보면서, 수차례에 걸친 세계전략경영학회에서의 논문 발표를 통해 ‘이번 신간의 어떤 기점에서건 항상 적용가능한 세계 최초의 기업일반이론’을 구축, 이

목숨에 담고 있다. (비룡출판사·판·값 25,000원)

건강기능식품

바로 알고 바로 먹자

—朴明潤 著



한국보건영양연구소 朴明潤(보대 원 74·76 삼육대 겸임교수·관악회 이사)이 소장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진정관료부 朴明潤(대학원 98·00)선임연구원과 함께 편찬한 라이프를 위한 건강 관리잡지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나, 식품영양 및 보건분야 전공 대학생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건강기능식품 개요를 위시해 건강보조식품, 영양보충, 증후 증후, 미네랄 및 무기질 보충제 등 총 70가지 품목에 대해 자세히 기술했다. (석학·판·값 12,000원)

미국은 남북화해를 방해했나?

—沈良賢 지음



경향신문·조선일보 기자를 지낸 인터넷 커뮤니티 ‘송안살’ 沈良賢(동양사학 80·87) 공동

공연

鄭元順 바이올린독주회

—5월 4일 예술의 전당

심병대 교수인 바이올리니스트 鄭元順(가악 85·89 코리안 솔로리스트 단원) 동문(사지)이 예술의 전당 다목적홀에서 독주회를 열고 모차르트의 작품을 연주한다. (공연 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파르셋21 정기연주회

—4월 27일 예술의 전당

첼리스트 朴英武(가악 77·81 한양대 교수) 동문과 바이올리니



스트 鄭鍾賢(가악 84종) 정병대 겸임교수) 동문 등이 파르셋21 정기연주회를 한다.

이번 연주회에서 그리그, 모차르트 등의 현악중주곡을 선보인다. (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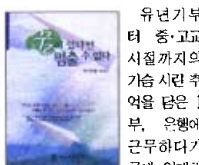
정부의 대북정책과 대미정책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논란을 다뤘다. 沈良賢은 이 책에서 북한이 중국과 한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계속 높여왔는데, 이는 변화를 감지하지 않으면서 필요로 하는 자원들을 조달받으려는 북한의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라고 강조한다. (오름·판·값 16,000원)

꿈이 있다면

멈출 수 없다

—李顯昊 지음

전성교통부 고수철도건설기획단장, 서울지방항공청장 등을 역임한 李顯昊(한대원 78·80 전국버스연합회 상임부회장) 동문의 자전적 에세이.



유년기부터 중·고교 시절까지의 가슴 시린 추억을 담은 1부, 은행에 근무하다가 군에 입대해 겪은 애프터와 군 제대 후 중경이족의 아픔을 그린 2부, 황정고시에 합격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3부, 약 50여 명의 여성과 맞선 을 보고 결혼한 4부, 미국유학 생활 2년 간의 에환을 담은 5부, 주요한 고비 때마다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삶을 살아오면서 겪은 심경을 담담하게 기술한 6부로 구성됐다. (작가마을·판·값 10,000원)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회비 : 2006년 2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05. 12. 21. ~ 06. 1. 25) · 일반(05. 12. 14. ~ 06. 1. 26)

원내 순자 : 입학년도(미합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 장 단

△부회장 高炳佑=50만원

평생히비

(가)	△공학계 공대
△김광원 대대	△김하호 대대
△김영우 대대	△김영우 대대
△김정자 공대	△김태수 본대
△김영 배대	△김한중 공대
△김희재 공대	△남대우 대대
△노병대 상대	△박실상 AIC
△박현진 본대	△박진정 醫大
△사범외 사대	△정점우 공대
△안경원 자연	△오치남 공대
△유석기 사대	△윤 본 공대
△유성현 법대	△이상진 공대
△이수경 의대	△이정구 공대
△이창관 공대	△장기정 공대
△정병승 본대	△차정식 공대
△최두홍 법대	△최시중 본대
△최재원 공대	△한승재 법대
△홍태환 공대	

(일반)	김강진 경 남대	김강진 경 남대
△국립인문대	김홍성 경 남대	김홍성 경 남대
△국주북대	김원석 경 남대	김원석 경 남대
△새기영 영영원	김연영숙 미대	김연영숙 미대
△연영원 국대	△권혁주 미대	△권혁주 미대
△김정환 가대	김교배 남대	김교배 남대
△김광호 호대	△김교배 호대	△김교배 호대
△김기부 호대	△김기순 광대	△김기순 광대
△김근우 인문대	△김남철 사대	△김남철 사대
△김대훈 호대	△김동수 호대	△김동수 호대
△김동진 광대	△김평훈 사대	△김평훈 사대
△김민아 의대	△김민규 의대	△김민규 의대
△김병철 의대	△김병환 남대	△김병환 남대
△김봉규 사대	△김상업 문대	△김상업 문대
△김상경 사대	△김성진 경 남대	△김성진 경 남대
△김성거 AMU	△김성국 미대	△김성국 미대
△김수현 문대	△김순진 약대	△김순진 약대
△김시자 AMU	△김안희 문대	△김안희 문대
△김영미 AMU	△김영민 인문대	△김영민 인문대
△김영배 남대	△김영진 호대	△김영진 호대
△김영재 호대	△김영태 호대	△김영태 호대
△김용구 남대	△김용성 사회대	△김용성 사회대
△김유재 SCS	△김재근 치대	△김재근 치대
△김재현 사회대	△김정근 공대	△김정근 공대
△김점진 사대	△김점민 사회대	△김점민 사회대
△김정은 호대	△김정태 미대	△김정태 미대
△김정환 문대	△김제삼 상대	△김제삼 상대
△김종근 경대	△김지숙 호대	△김지숙 호대
△김창호 경대	△김치영 호대	△김치영 호대
△김학수 법대	△김학진 GLP	△김학진 GLP
△남기인 AMU	△남상현 AMU	△남상현 AMU
△노성진 문대	△노한희 문대	△노한희 문대
△문우일 사대	△문찬희 호대	△문찬희 호대
△박기진 공대	△박명남 남대	△박명남 남대
△박병호 경대	△박수남 사대	△박수남 사대
△박수용 의대	△박승국 사대	△박승국 사대
△박원기 공대	△박이슬 경대	△박이슬 경대
△박재근 사대	△박재희 경대	△박재희 경대
△박지자 호대	△박재범 호대	△박재범 호대

△박학원 성대	△박학송 미대
△박학재 가평	△박근재 대원
△박재우 군대	△백종근 법대
△사서광문 경성	△사대내 大經
△사미로 박대	△서영환 미대
△사정훈 공대	△송재현 사대
△신근로 大經	△송기호 일교
△신남규 성대	△신성섭 大經
△신성준 사회	△신호훈 미대
△심상익 AFB	△안광훈 문대
△안재영 공대	△안배준 가평
△오석근 공대	△오영철 경성
△오창준 법대	△오승환 공대
△왕희민 유대	△왕영선 신대
△왕희기 유대	△유경철 신대
△이 민 공대	△이 일 사대
△이성진 신대	△이근호 신대
△이남수 유대	△이문호 규대
△이범진 AFB	△이복선 연대
△이복록 가평	△이성재 법대
△이성훈 공대	△이성욱 신대
△이성상 유대	△이석우 문대
△이영호 공대	△이웅의 신대
△이영희 공대	△이원옥 규대

▲이재동 한대초	▲이재수 AMP
▲이재국 사대초	▲이종원 한대초
▲이정국 광대초	▲이정희 이문초
▲이춘자 간호초	▲이혜국 삼대초
▲이영주 삼대초	▲이희식 간대초
▲임기우 자연초	▲임종수 한대초
▲임승희 반전초	▲임득근 인문초
▲장승훈 자연초	▲장호지 영명초
▲장정환 미대초	▲장희희 관대초
▲전경호 광대초	▲전동환 한대초
▲전순희 한대초	▲전인수 사대초
▲정병식 한대초	▲정관일 수리초
▲정병철 AFB	▲정민우 한대초
▲정병철 사대초	▲정종호 사회초
▲정진하 한대초	▲정창호 한대초
▲정신모 광대초	▲정현진 한대초
▲정희석 동대초	▲조병문 광대초
▲조성철 경명초	▲조상만 광대초
▲조영호 광대초	▲조장수 광대초
▲조현서 한대초	▲주승훈 광대초
▲진광현 범대초	▲진성문 광대초
▲천윤준 광대초	▲최구국 유대초
▲최부영 광대초	▲최병찬 한대초
▲최유준 동대초	▲최의식 삼대초
▲최재정 사대초	▲최재진 사대초
▲최호준 유대초	▲최홍성 한대초
▲최지영 광대초	▲최창호 AIP
▲최현수 광대초	▲최상혁 간대초
▲하인환 한대초	▲하태환 한대초
▲한상환 동대초	▲한태희 광대초
▲허덕영 AMP	▲허준희 SCS
▲홍기우 GM	▲홍정환 사회초

이 사

◆인문대 김병준 **한대초** 이정준 **한대초**

◆사회대 김 연철 김용민 **한대초**

◆농수산대 박희영 **한대초** 이상원 **한대초**

◆자연대 조 호원

◆자연대 조 호원

101

◆인문대 △김범준(9) △이정웅(24)
◆사회대 △김영(29) △김용표(8)
△남승우(9) △박희영(8) △이상원(79)
△황기호(7)

◆지연대 오조훈(충) 이병홍(충)
◆김대대 삼강기(주) 오병삼(서)
◆경명대 삼강심(강) 유희석(강)
◆금대 회진호(충) 조병조(충)
△경북대학 △김교성(충) △김대포(충)
△김경근(충) △김영규(충) △김영훈(충)
△김정기(충) △김희석(충) △김주희(충)
△김영대 △김영삼(충) △김영철(충)
△김정민(충) △김민현(충) △노대천(충)
△김민식(충) △김남수(충) △박철호(충)
△김정승(충) △김희석(충) △원주희(충)
△윤종갑(충) △이근평(충) △이대형(충)
△이민수(충) △이성현(충) △이시우(충)
△이시우(충) △이영선(충) △이우연(충)
△이주범(충) △이지수(충) △이필현(충)
△이우호(충) △이원택(충) △이희상(충)
△정충훈(충) △조두현(충) △시정근(충)
△최동재(충) △최민백(충) △최성일(충)
△홍규승(충) △박덕연(충) △홍진근(충)
◆봉대 △박지상(충) △박기우(충)
△괴경근(충) △박희양(충) △박진석(충)
△배정길(충) △김성우(충) △송유철(충)
△오보철(충) △오보국(충) △오세익(충)
△유광림(충) △정동국(충)
◆문대 △김기우(충) △김광식(충)
△김정현(충) △김정성(충) △김하진(충)
△김현규(충) △박상현(충) △박복룡(충)
△박관서(충) △박재열(충) △박경호(충)
△오동희(충) △이대승(충) △이병근(충)
△이보준(충) △이시진(충) △이영준(충)
△이재환(충) △이재익(충) △이정길(충)
△최시영(충) △최종욱(충) △한진규(충)
△현순환(충)
◆미대 △전승철(충) △박동진(충)
△박병(충) △최동진(충)
◆법대 △강 유현(충) △기우현(충)
△구중서(충) △김기안(충) △김범중(충)
△김정희(충) △김정길(충) △김정수(충)
△김용환(충) △김이수(충) △김재호(충)
△박현환(충) △박준현(충) △박병대(충)
△박영우(충) △박재우(충) △심상철(충)
△안선희(충) △윤은용(충) △이국재(충)
△이근영(충) △이근규(충) △이병석(충)
△이성모(충) △이수영(충) △이순배(충)
△이재환(충) △이형아(충) △이원택(충)
△장범웅(충) △정우영(충) △조수원(충)
△정병배(충) △최철목(충) △최진수(충)
△최병구(충) △최희철(충) △최준영(충)
△홍석열(충) △홍기연(충)
◆사대 △김보완(충) △김광명(충)
△김남현(충) △김남준(충) △김봉준(충)
△김정현(충) △김정현(충) △김정현(충)
△노경환(충) △박기우(충) △박복룡(충)
△서병준(충) △심우영(충) △이기준(충)
△이대현(충) △이민우(충) △이민지(충)
△이승권(충) △이원경(충) △이민지(충)
△이준준(충) △이조준(충) △이환기(충)
△이홍수(충) △정병기(충) △정복원(충)
△조건상(충) △최기범(충) △최정훈(충)
△최주영(충)
◆상대 △고원국(충) △구병영(충)
△구지희(충) △김대현(충) △김방언(충)
△김부규(충) △김시용(충) △김준우(충)
△문성철(충) △매정기(충) △최하진(충)
△최정현(충) △최정현(충) △최우영(충)

▶이명박(李明박) ▶이민욱(李民旭) ▶이내환(李內煥)
▶이현리(李顯利) ▶임재국(任在國) ▶임정훈(林正勳)
▶임종국(林宗國) ▶김성상(金成相) ▶김경태(金敬泰)
▶조산호(趙山浩) ▶조재환(趙在煥) ▶최기동(崔奇洞)
◆의대 ▶비승도(裴承道) ▶비호인(裴虎仁)
▶유무섭(劉武雪) ▶이문삼(李文三) ▶이정인(李正仁)
▶조병래(趙炳來)

◆의대 ▶김장환(金長煥) ▶김동준(金東俊)
▶김강수(金江守) ▶김주용(金周用) ▶김영택(金泳澤)
▶김원형(金元亨) ▶김진우(金鎭宇) ▶김지복(金智福)
▶김창국(金昌國) ▶노승훈(盧承勳) ▶서한익(徐韓翼)
▶유근연(柳根演) ▶윤규식(尹圭錫) ▶이세복(李世福)
▶이경철(李敬澈) ▶이민욱(李民旭) ▶임정모(任正模)
▶장영택(張永澤) ▶최한국(崔韓國)

◆골대 ▶김정일(金正日) ▶안종찬(安鍾贊)
▶이규룡(李圭龍) ▶조정하(趙庭夏)

◆의대 ▶김구상(金九相) ▶김강진배(金江鎭培)
▶노건순(盧健順) ▶이대규(李大圭) ▶김정섭(金正燦)
▶이부설(李富設) ▶최희정(崔熙正) ▶홍두석(洪斗石)

◆지도 ▶김삼룡(金三龍) ▶김민익(金敏益)
▶최치오(崔致五) ▶이병덕(李秉德) ▶보령길(保寧吉)
▶박지웅(朴智雄) ▶수병학(水彬學) ▶송기열(宋基烈)
▶이교민(李敎民) ▶이시행(李時行) ▶노응중(盧應中)
▶이재성(李在成) ▶이지호(李智浩) ▶장광빈(張光賓)
▶최기채(崔基載) ▶최정판(崔正判)

◆최대위원 ▶허반수(許半守) ▶배필진(裵弼鎭)
▶조충현(趙忠顯) ▶김정섭(金正燦) ▶이재봉(李在奉)
▶김정모(金正模) ▶조현래(趙顯來)

◆교과대표 ▶김정휘(金正輝)
◆교과대원 ▶손은애(孫恩愛) ▶이[○]현(李[○]顯)

◆신대원 ▶조희정(趙熙正) ▶조희숙(趙熙淑)
▶최대원 ▶고효삼(高孝三) ▶최기동(崔奇洞)
▶최범채(崔範載) ▶변기호(邊基浩) ▶육근열(陸根烈)
▶이재오(李在吳) ▶장천규(張天圭) ▶최정민(崔正民)
▶최대원 ▶최도환(崔道煥) ▶최진도(崔鎭道)

◆AMP ▶김병현(金炳顯) ▶김재래(金在來)
▶김영수(金映守) ▶이기복(李基福) ▶손찬수(孫찬수)
▶양영우(梁英宇) ▶염복섭(嚴復燾) ▶이준희(李準熙)
▶최상생(崔尙生) ▶전영돈(田榮頓) ▶이호은(李浩溫)
◆AIP ▶김종춘(金宗春) ▶이바린(李巴琳)

◆ACAD ▶이영선(李英善) ▶이정자(李正子)
▶최지현(崔智顯) ▶최종옥(崔鍾玉)

◆ABP ▶박준명(朴尊鳴) ▶이시화(李時華)
◆SGS ▶김강수(金江守) ▶권영재(權永在)

▶APC ▶류수진(柳秀鎭)
◆HPM ▶송승진(宋承鎭)
◆AIC ▶윤재영(尹在榮) ▶이정재(李正宰)
▶최지자(崔智子) ▶최현구(崔顯求)

구분	비고
----	----

◆인문대 △강상진(원) △김성호(원)
△김영철(원) △김원국(원) △김희정(원)
△노혜진(원) △박진호(원) △박병재(원)
△박희영(원) △변승진(원) △변승철(원)
△승미영(원) △신승하(원) △오보령(원)
△유경숙(원) △윤석진(원) △이경하(원)
△이용환(원) △이정민(원) △임정민(원)
△정지영(원) △조영남(원) △조정태(원)
△채민경(원) △한영선(원) 허준원(원)
◆사회대 △강종구(원) △권상우(원)
△권태환(원) △김기재(원) △김성훈(원)
△김승희(원) △김민진(원) △김종선(원)
△김호성(원) △박근표(원) △민기훈(원)

[illegible]

